

2019
포항예술인한마당



나의 살던 고향은.. 展 / 나의 포항(공연)

市 승격 70년



포항예총 특별기획

2019 포항예술인한마당

전시

2019. 12. 6(금) ~ 11(수)

나의 살던 고향은 _ 포항시립중앙아트홀 1층 전시실

공연

2019. 12. 11(수) 19:30

나의 포항 _ 포항시청 문화동 대장홀

주최 사단 법인 한국예술 포항지회

후원 포항시

인사말



‘2019 포항예술인한마당’을 펼치며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어느 해보다 실감나게 와 닿는 한 해의 끝자락에 포항의 예술인들이 펼치는 예술축제 ‘2019 포항예술인한마당’을 준비하였습니다. 포항이 시로 승격된 지 70년이 됨을 기리는 의미로 특별히 마련한 전시회 「나의 살던 고향은...」과 공연 「나의 포항」이 그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展」은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작가들께 ‘태어난 고향은 어디입니까?’라는 물음을 던졌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출품해 주신 각자의 개성 있는 작품 70여점으로 꾸민 전시회입니다. 우리지역 문인들의 육필 작품, 미술인들과 사진가들이 풀어내는 고향의 맛과 멋을 한껏 누릴 수 있습니다.

국악협회와 연예예술인협회의 협업공연 「나의 포항」은 포항이 시로 승격되던 해인 1949년에 태어나 포항에 살고 계신 70세 되시는 시민들께 헌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선곡된 영상을 곁들인 노래와 연주에 흥뻑 젖어드는 감동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항은 활동해 중심도시이며 아름다운 영일만을 품은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오랜 제철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철강공장인 포스코가 우리나라 근대화의 새벽을 밝힌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화예술의 시대를 맞으며 지역의 예술가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함으로써 산업과 관광,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예술인의 땀과 문화시민들의 동참으로 만들어 갈 ‘2019 포항예술인한마당’을 지원해주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관계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한마음으로 노력해주신 포항예총의 9개 협회 지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9. 12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항지회장 류영재

축사



시민들과 함께 화합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지역 예술인들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2019 포항 예술인 한마당'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역 문화예술계를 열심히 이끌어주시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류영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항지회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 한해는 우리 포항이 시로 승격된 지 70년이 되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서 포항은 국가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었던 대표 철강산업도시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행복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 다가올 문화예술의 시대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포항문화재단을 출범시키고, 문화예술 창작지구인 '꿈틀로'를 조성하는 등 도시 전체가 예술의 감성이 흐르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우리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문화예술인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문화예술의 뿌리를 지역에 내리는 데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항 예술인 한마당 행사가 포항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예술인 여러분의 문화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포항 예술인 한마당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가 지역의 문화예술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예술인 여러분의 진정한 화합의 축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포항시장 이 강 덕

축사



겨울밤의 아름다운 정취만큼이나 낭만의 무대가 될 '2019 포항예술인한마당'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포항의 예술문화 발전에 힘써 오시며, 지역 예술문화의 깊이를 더할 이번 공연을 마련해주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항지회 류영재 회장님과 산하 협회장님,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해주신 예술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적 역량이 국가는 물론, 도시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능하는 핵심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 때, 지역 곳곳의 일상 속 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이야기로 우리 포항이 진정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해 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포항의 지난운 역사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시승격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재조명하는 만큼, 함께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포항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예술문화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행사가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포항만의 문화와 정서가 함축되어 있는 훌륭한 작품 및 공연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예술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2019 예술인한마당'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속에 본 공연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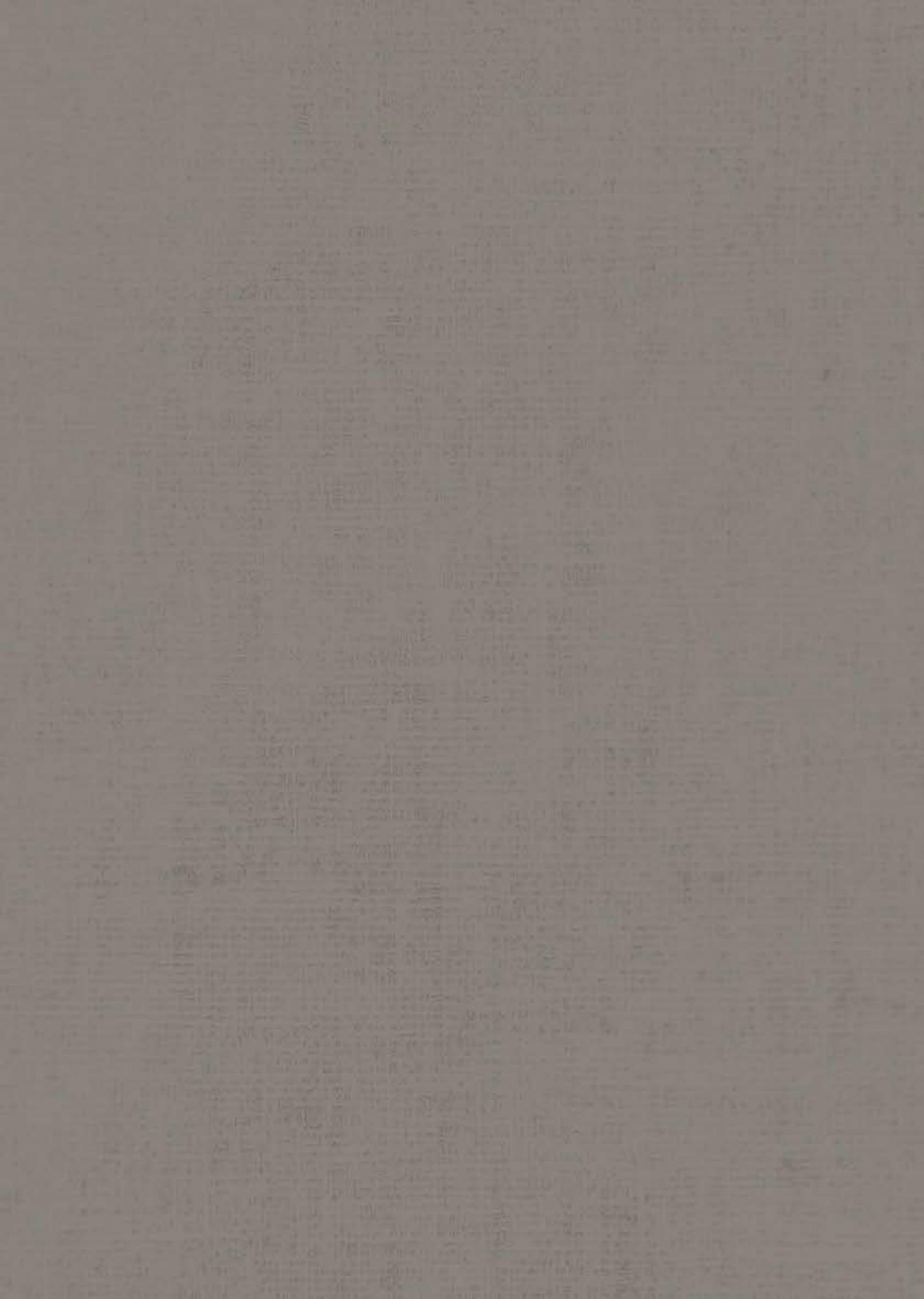
포항시의회 의장 서재원

Contents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항지회장 류영재	3	
포항시장 이강덕	4 / 포항시의회 의장 서재원	5
나의 살던 고향은…	6	
포항 70년 지기, 49년생들을 위한 노래 – 나의 포항	51	
협회 연혁	56	

전시

나의 살던 고향은…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강성태 강영주 권영옥 김기숙 김두호 김미숙 김민희
김옥연 김원재 김재숙 김정금 김창수 목진국 박경숙
박상현 배현철 백수현 변만석 변수진 서종숙 송상현
신백균 오남식 윤경희 이종길 이현정 장미화 정송자
정운혜 최복룡 최수정 최재영 최정희 한승협 황정아

강성태

내 고향 물한리(勿閑里)
35×135cm_화선지, 먹, 파스텔

개인전 3회(2008, 2010, 2012)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역임 / 포항시서예대전 운영, 심사위원 역임, 초대작가상 수상 / 근로자문화예술제 은상, 동상 및 한국미협포항지부 우수작가상 수상

현) 포스코국립화장, 포항서예가협회 이사,
심산서육 主宰

포항시 남구 효행길53번길 6 G-4호
<심산서육>
010-4520-5969

고향은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회색의 도회지, 난관의
벽에 부딪혀 의기소침해질 때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다가오는 푸진
얼굴, 그 모든 것을 포용하며 아픈
마음을 다소곳이 어루만져 용기와
의욕을 북돋워주는 어머님의 품속이
아니던가. [작가노트,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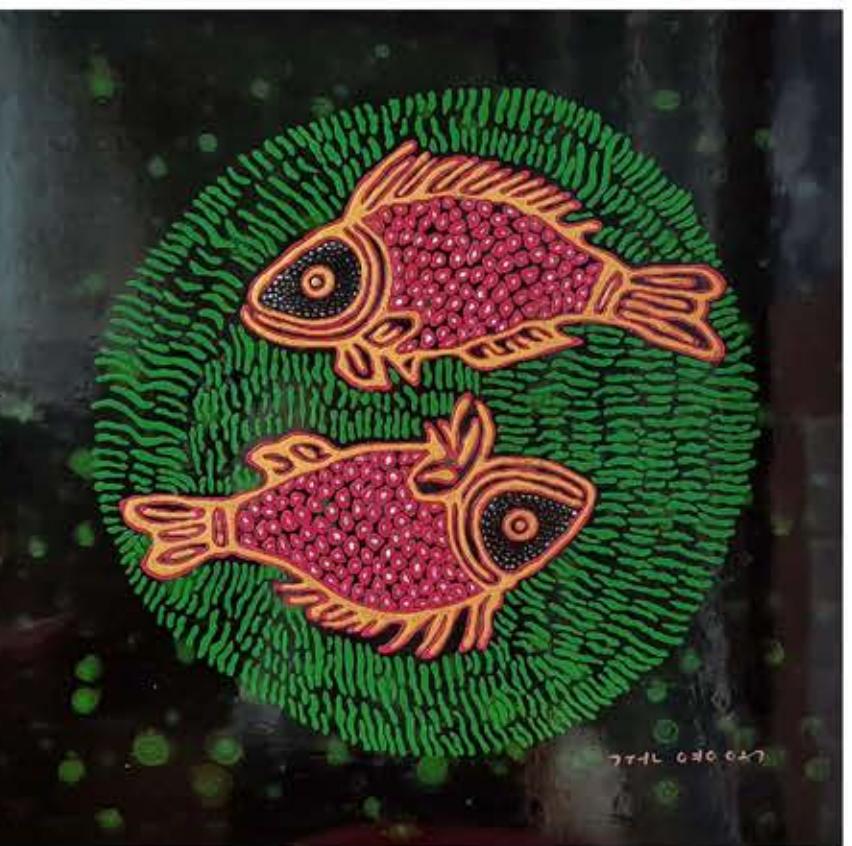
강영주

꽃 나무 숲을 짓다
53.0×45.5cm_oil on canvas

한국 미술협회 회원
포항 미술협회 회원
개인전 3회
그룹 전시회 30여회
디자인하는 SALT153 대표

포항시 북구 상통로 74번길
010-2349-9424

삶에 지친 나를 위한 위로의 장소로
숲 속 깊은 곳의 꽃 나무 아래에 누워
낮잠을 청하며 작은 위로를 얻는다.
[작가노트]



권영옥

어(魚) 60×60cm_목심옻판, 색옻, 자개

세종대 회화과 졸업
교원미전2회 금상수상
문화예술학관 개관 기념전 출품
포항시립 미술관 개관 기념전 출품
원주옻칠대전 특선(2017)

포항시 북구 용해읍 도음로 701-7
010-2531-3580

포항의 어촌마을 이미지를 떠올려
물고기의 형상을 현대화한 작품으로
옻과 자개라는 신선한 재료로
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작가노트]

김기숙

사과나무
72.7×53.0cm_oil on canvas

개인전 1회
성류문화제 미술전시회
울진미술협회전
찾아가는미술관(항암미술관)
송울전전울진, 경주, 대구, 포항, 울산, 인동
초대전, 교류전, 단체전 다수
불빛미술대전 입상

포항시 남구 지곡로294 그린아파트
218동 304호
010-6362-5592

몇해전 찍은 사진이다. 가을빛
넉넉한날 카메라를 메고 나가
가을풍경을 담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 오래된 고목의 사과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가지가 휘어질정도로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 누군지도
모를 사과나무 주인의 욕심없고
넉넉한 인심마저 느껴졌다. 가을의
풍요로움과 사과나무주인의 넉넉한
인심을 그려보고 싶었다. [작가노트]

김두호

기억흔적_송도 45×45cm
oil on canvas

2018 지역감성 청년작가 교류전(금련산역 갤러리, 부산)
2017 신진작가 인물화전(키다리갤러리, 대구)
2017 영.호남 포스코 기획전(포스코갤러리, 포항)
2016 137-연결고리전(수성아트피아, 대구)
2016 보다전(DGB갤러리, 대구)

포항시 북구 용흥동 현대1차 102동 102호
010-6375-2522

사진을 서치하다가 우연히 송도의 한 장면을 보게되었다. 그 사진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실제로 경험하진 못하였지만 마치 경험한듯한 느낌을 받았다. 불과 17년전 학창시절에 포항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걸 새삼 느끼면서 기억의 잔상을 송도의ダイ빙 장소를 바탕으로 표현하였다. [작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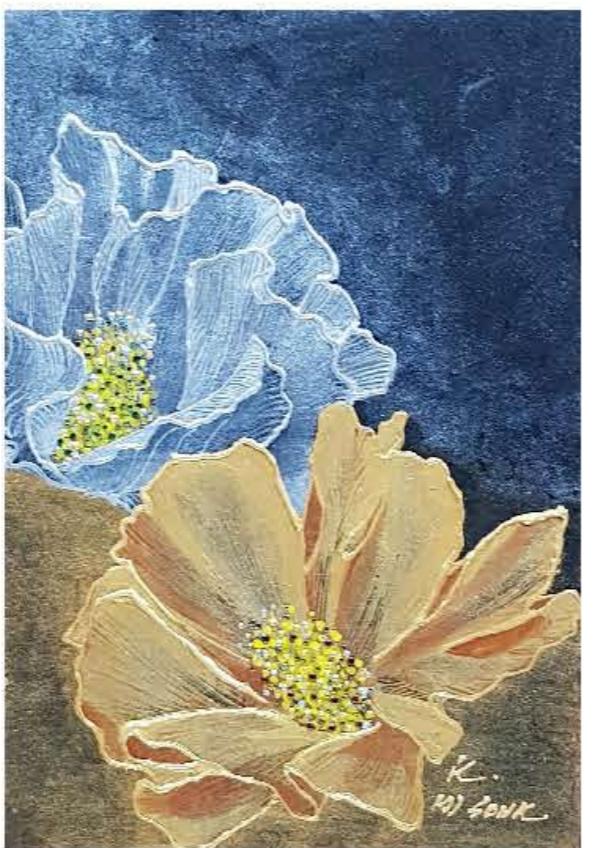


김미숙

나의사련 고향은 - 목화꽃
23×33cm_한지에 금분, 은분, 크리스탈

개인전 6회(서울 경인미술관 외)
단체전 80여회(서울, 포항)
전시기획 '꽃피는 봄날에는...' 외 다수
(2011~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미술교육 주강사
(2015~2019)
포항문화예술창작지구 임주작가
(2017~2019)

포항시 북구 삼호로 450 라동 102호
010-7540-9811



내 고향은 강원도 인제이다. 온 천지가 산과 부대밖에 없었던 풍경에서 내나이 9살때 넓은 평야와 과수원들이 펼쳐진 충청남도 아산 이란곳으로 이사를 왔다. 너무도 생소한 풍경에 많이 놀랐던 기억이난다. 그때는 주변의 풀이나 나무들도 인제와는 다르게 생겼다고 느꼈었던 기억도 난다. 그 시절 처음 보았던 복화꽃을 그려보았다. 복화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인가 별자리 요양원에 계신 엄마가 보고싶다.
[작가노트]



김민희

우진아파트
72.5×52.8cm_acrylic on paper

2019 갤러리문기획소품전
2018 포항예술인한마당-영일만사립률전
2018 포항미술협회 정기전-포스코갤러리
2015 k-art거리소통프로젝트, 경주예총예술제(경주예술의전당)
2006~2019(포항청년작가회전-소품, 정기전)
2010 시립미술관 개관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대림한숲1차아파트
113동 502호
010-9816-0913

울산에서 태어나 19살때까지 살던 나의고향 울산, 우진아파트, 포항에서 울산가는 길, 고속도로가 생겨나고 우진아파트 주변 옛 문구사들과 집들이 재개발로 모두 없어지고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모든게 변했지만 우진아파트는 페인트 색만 바뀌는 듯 하다. 봄이 오면 벚꽃이 한가득 피어있다. 어릴적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우리집, 나의 친정이다. [작가노트]



김옥연

은행나무 53×41cm_oil on canvas

대구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개인전 3회
개인부스전 4회 및 단체전 다수
경북미술대전 우수상 및 공모전 수회 수상
포항시 북구 기계연 학야길 129번길
76-17
010-6523-6357

어릴적 마음에 품어진 풍경은 일상을 두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나무를 좋아합니다. 오래전 친척을 만나러 가는 할머니를 따라 나선 길에 아주 키가 크고 온통 황금빛인 은행나무 한 그루를 만났는데,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울산서원 근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린 눈에도 노란나무가 참 예뻤습니다. 몇해 기울도 화구를 채비하고 은행나무 큰 가지 아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년, 그 다음해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작가노트]

김원재

길 19-1 12호 F_oil on canvas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입선 수상
경북 미술대전 우수상, 특선, 입선 수상
신라미술대전 추천작가
불빛미술대전 초대작가
제27회 근로자문화예술제 미술분야 대통령상 수상

포항시 북구 삼호로392, 120동 1103호
(한호 해맞이 그린빌)
010-4616-0538

기계면 화대리 산 언덕길에서 가을 햇살을 받아 아름다웠던 산길 모습을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질문으로 다가온 꿈을 색으로 역광에 풍성함을キャン스위에 길이라는 명제로 표현해보았다. [작가노트]



김정금

추억여행

45.5x37.9cm_acrylic on canvas

총이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 전공 졸업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졸업
개인전 6회 / 단체전 200회 이상 초대전
기획전 국제전 / 풍림아이원 재능기부, 비전대학, 조이아카데미 출강 / 불빛미술대전초대작가 / 경북미술대전초대작가

현) 한국미술협회원, 포항미술협회원

포항시 북구 양덕로 60, 116-1902호
(양덕풍림아이원)
010-7121-8323



김재숙

꿈 많은 여고 시절 38x30cm_캔화

경북대전 40, 41회 입선
포스코 불빛대전 7~13회 입선
개인전 4회(중영이트홀 외)
디센버, 그림정원, 키리엔 갤러리 그룹전 45회
대한 오늘의 작가 전시전, 열린세대전,
찾아가는 미술관, 한국 현대 창립 예술협회
정기전

포항시 북구 아호로 28 동아전원타운
가동 107호
010-2911-9580

1969년 50년전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포항여고 옆 기찻길...
3학년 마지막 겨울에 친한 친구
세명이서 기찻길을 걸으며 기념사진 한
컷. 한명은 호주로 또 한명은 대구로
시집가고 끗곳이 포항을 떠나지 않은
나의 소중한 어린시절 [작가노트]



김창수

노인과 포스코

53x34cm_oil on canvas

신진작가 초대전(갤러리 데이지, 2019)
봄의 제전 – The rite of spring(포항시립미술관, 2017)
현상회(2019~2009)

포항시 북구 양덕동 1463번지
심구트리니언1차 105동 2301호
010-3153-4343



목진국

건조장 있는 풍경

6F_acrylic on panel

개인전 5회
신라미술대전 초대작가
호밀이트페어전(2017)
경주회백컨벤션센터개관전
전경의 맥 영남47인전(포항시립미술관)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10번길
11-5(대정동)
010-7100-8425

포항시 죽장면 담배 건조장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도 사라졌다.
방앗간에서 떡을 해 오고, 건조장에서
장작을 때며 고구마와 떡을 구워
먹던 기억이 가물거린다. 아름다웠던
풍경에 금빛을 넣어 소중한 기억임을
표현하였다. [작가노트]



박상현

나의 살던 고향은

65×35cm_oil on canvas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7회

현) 포항미술협회회원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 63-6번지
010-4056-0720



박경숙

나는 바다 없이는 못 산다.

50×40cm_종이에 볼펜, 이크릴

개인전 3회(포항, 대구) / 단체전 및 초대
전 다수 / 2018 포항우수작가 초대전

현) 한국미술협회, 포항청년작가회 명예회원
포항시 북구 삼호로 391 환호 해맞이그린빌
119동 1605호
010-7728-0017

우리 지역은 참 좋다. 내가 사는
바닷가는 생명이 출렁이는 역동적인
힘과 사계절, 매일, 매시간마다 바다의
빛깔과 분위기가 다르다. 또한 냄새도
알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하고 신선하다.
차를 타고 5분이면 어디에서나 바다와
만날 수 있어 좋고, 또한 푸르름의
색채가 전해주는 청량감으로 눈과
마음이 참으로 행복을 누리고 산다.
직장생활에 있어서 출장업무를 가게
되면 항상 꺾는 일이 있었다.

[작가노트, 부분]



배현철

삶의현장-1 91×50cm_oil on canvas

개인전 1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경북도전, 신라미술대전,
불빛미술대전 심사
선과색전 회원전, 초대전
심상전 회원전, 초대전
이트페어 청기(광저우, 상하이, 홍콩, 부산,
창원, 경주, 포항, 대구)

포항시 북구 대안길56 106동 803
(용흥 우방다문)
010-5465-2133



35년 전 송도에서 10년간 살았던
기억이 난다. 힘들게 지냈지만 참
행복했었다. 지금은 높은 아파트도
있고 교양도 생기고 복잡한 마을로
변해가고 있지만 지금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힘들게 지내는 역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옛날과
달리 깨끗한 하천과 아름다운 조경이
어울려 포항의 명소로 알려졌지만
나에게는 송도의 풍경이 아련이 옛
생각에 잠기며 이 작품을 제작하다.
[작가노트]

백수현

2019 Intangible nature

91.0×72.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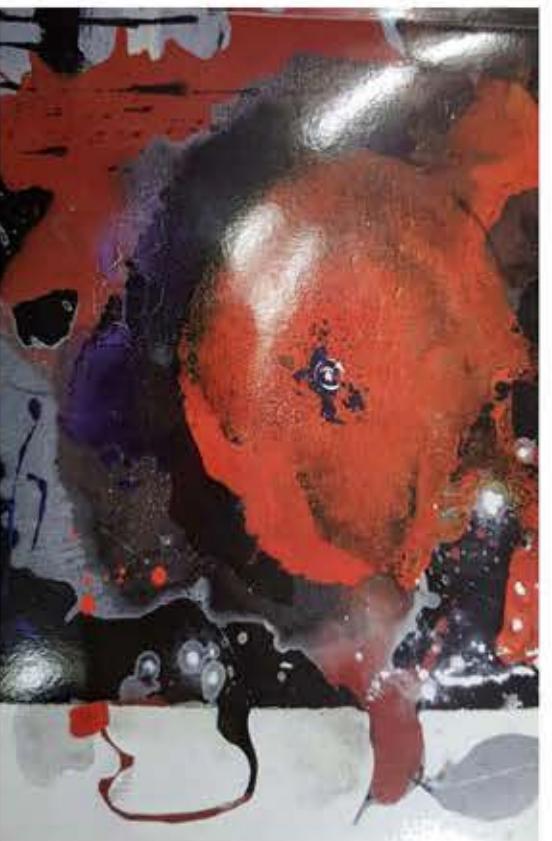
canvas on mixed material

대구대학교미술대학박사과정현대미술전공
영남대학교일반대학원 회화과졸업 / 계명
대학교미술대학 서양화과졸업 / 개인전
15회 /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3
회 / 구상회. 상형전. 여성미술대전 입선 /
2018년 한국예술작가상수상. 경기예술대
상수상 / 2019년 Sydney International
sunstudio / 2018년 lasvegas city
Mgallery / 2018년 인사동 ArtinC gallery
초대전 / 1990년 한일교류전-2019년한
국미협경기전

현) 동국대학교미술학과 겸임교수. 심사위원 / 대한민국미술대전 / 행주미술대전, 평
화미술대전, 동일미술대전, 한국미협분과
위원 / 구상회. 삼성현미술대전초대작가.
한국미술창작협회회원

010 8586 9685

“추출, 요약, 생략”으로부터 시작되는
'추상'은 회화에서는 크게 비논리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상적인 색채에 의한 표현과,
이상적인 논리의 정형화된 표현이 있는데
본인의 작업은 전자에 속하며 뜨거운
추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작가노트]



변만석

내고향 구룡포항

41.4×32.2cm_oil on canvas

계명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2019코
리아 아트페스티벌 출품 / 개인전 인물화
전(중앙아트홀) / 두 번째 개인전2017(빛
갤러리) / 2019한국현대드로잉협회창립전
/ 2018포항호텔아트페어 / 대한민국 구상
작가 대작특별전(현대미술관) / 진경의 맥-
영남47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교육협회, 경북
구상작가회, 신조형미술초대작가

포항시 북구 중앙상기6길 6(신흥동 2층)
석아트화실
010-2507-9054

언젠가 한번 그리고 싶은데 고향
구룡포항을 그려보니 새삼 벅차
오르는 마음이다. 회창한 날씨에
리듬을 연상시키며 나란히 정박해
있는 어선 또는 따로 떨어진 배들이
아주 회화적이며 항구의 시작적인
칼라가 그리고 싶은 욕구를 샘솟게
했다.

[작가노트, 부분]



변수진

그리움

20호_이크릴, 혼합재료

동국대학교 졸업 / MBC 대학 미술전 / 포항
문화예술관 개관전 / POSCO 기획 초대
전 / 포항시립미술관 개관전 / 열린세대전 /
해오름 동맹 초대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산호그린 1차 309호
010-9833-2632

경남 창녕이 고향인 나는 할아버지
댁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 소죽 끓이는 할머니 옆에 불을
피며 고구마랑 마늘을 구워 먹었는데
그 맛을 잊을수가 없다. 시골 동네
어린 친구들은 어른들이 논 밭으로
일하려 가면 들로 산으로 나무, 연못,
곤충, 새들을 벗하려 뛰어놀다가 해가
.Args으로 넘어갈 무렵이면 논둑길을
따라 삼촌과 숙모님 마종을 나갔었다.
삼촌은 지게에 풀을 가득지고 누령이
황소를 데리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판의 황금물결 벼들와 서산으로
넘어가는 봄은 저녁 노을은 항상
내 기슭을 벽차게 했었다.
내 기억속의 고향 [작가노트]

서종숙

Memory – 아주 오래전

34.5×27cm_캔버스에 혼합재료

개인전 4회(1997, 1999, 2002, 2008)
포항, 대구, 김제
그룹전 및 해외전 100여회
봉사로 꽂피다 전(2015)
(주)문화밥 대표, 꿈미음학교 대표, 문화예
술치유기획자, 꿈틀로일주작가

포항시 북구 우창서길5, 103동 1405호
010-2501-7105

내 기억 속 눈물로 빛나는 밤하늘
별과의 슬픈 대화
나의 눈에 비친 빛나는 별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다시 기억 속에 새겨
있네. [작가노트]



송상현

remembrance

53×45.5cm_mixed media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 개인 전 13회 / 아트페이 13회 / 단체, 초대전 200여회

포항시 북구 삼호로 391 104-1904
010-8200-3774

기억-화석화된 소리
들뢰즈는 망각의 힘으로부터 생성의 존재론을 구축하고자 했다. 오래된 기억의 존재가치에 대한 탐구를 통해 봄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표현하거나, 어릴 적 회상, 추억을 비탕으로 비움의 소리를 표현함으로 소리에 대한 사색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제, 여든 넘은 어머니의 흐린 눈과 뇌경색으로 인한 어눌한 말투는 또렷하고 푸르른 기억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망각이라는 축적과 겹으로 지워지고 조각난 안(the inside)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 고향 풍경과 지난 역사에서 한 많은 어머니 세대에 대한 경외와 현화를 통해 파편처럼 갈라지고 무뎌진 현재를 조망한다. [작가노트]



신백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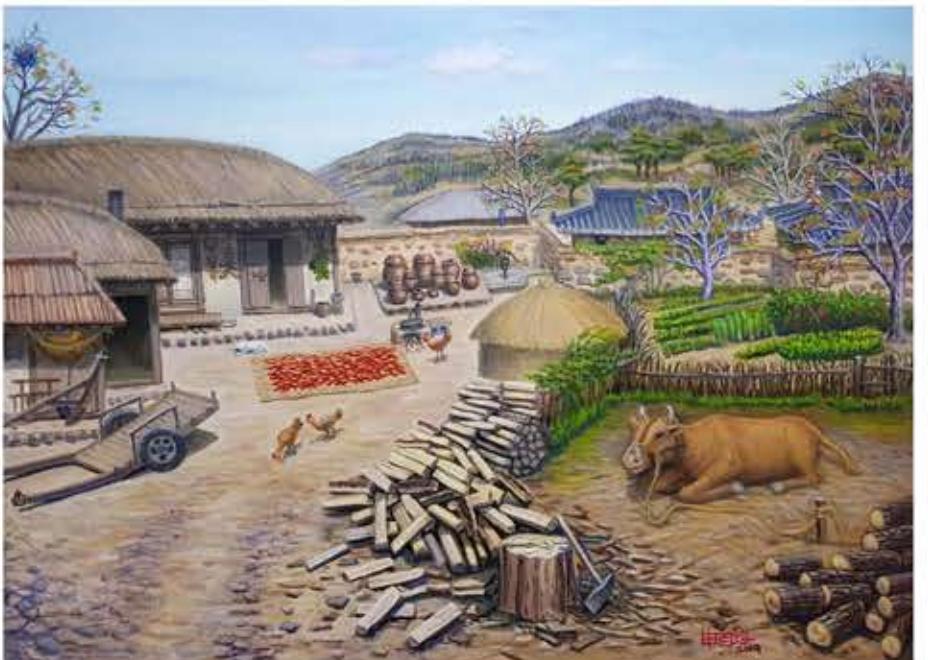
서정적 농가

72.7x53cm_oil on canvas

총익대학교 미술교육원 서양화전공수료 / 프랑스 잉데팡당 세계4대 미술공모전 2019 입상 / 프랑스 잉데밀로회 브스전, 프랑스 잉데밀로회 회원전 / 경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신라미술대전초대작가 / 대구시 미술대전, 경북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 솔거미술대전, 불빛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86.90.대한민국미술대전입선, 경상북 도문화상 수상 / 대상 1, 우수상 4회, 미술상 40회, 경북도미술 초대작가상 / 세종문화회관 개인전 독거노인돕기전 등 7회 / 동남아순회전, 센프란시스코, 후쿠야마, 시내마, 한·중·일 전

포항시 북구 현대고층 한라종합상가
신백균회실
010-7314-2772

조가는 한국 서민들이 살아오던 흔적.
선조때부터 술한 애환이 담겼다.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식민지,
6·25사변을 겪은 서러운 서정적
흔적이다. [작가노트]



오남식

고향 60×135cm_먹, 화선지

영남대학교대학원석사졸업(조소전공)
개인전 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역임
경상북도서예문인회대전 심사위원역임
개천미술대상전 심사, 운영위원역임
대한민국서각대전초대작가
포항시서예대전 심사, 운영위원역임
영일대, 금장대한판제작설치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운제로 312-40
일곡조형연구소
010-3509-7463



윤경희

봄날 53×45.5cm_oil on canvas

한국미협, 포항미협회원
불빛미술대전 초대작가
포항 coloring book 제작
경북미협전, 포항·광양교류전, 열린세대전,
찾아가는 미술관 등 다수 전시

포항시 북구 대인길56 125동 101호
(용흥동 우빙타운)
010-5855-6024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에서의 첫기억은 우리집 대청마루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늘을 덮을듯한
벚꽃들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도로가 있는데 고목의 벚꽃나무
아래로 학생들이 줄지어 소풍 또는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보였다.
그때는 거의 전부가 불국사역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는 불국사까지
걸어갔다. 고목이 배어지고 다시 심은
나무가 고목이 된 지금... 까까머리의
남학생과 단발의 여학생들의 머리색도
벚꽃의 색이 되어 인생의 고목이
되어가고 있겠지... [작가노트]

이종길

송도-평화의 여신상

72.7×50.0cm_oil on canvas

국립창원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회(2001) /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수료 / 개인전(포항
시립중앙아트홀, 2011) / 2인전 3회. / 이
트페어(서울, 대구, 부산, 경주, 포항, 벨기
에) / Locality-재현과 구현(솔거미술관,
경주, 2018) / The Rite of Spring(포항
시립미술관, 2017)

한) 한국미협, 현상회, 아르인

포항시 북구 용당로137 2층
010-3528-2808

송도~ 유년시절 송도초등학교를
다녔다. 여름이면 송도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며 흥합을 따고 모래에
발을 비벼 조개를 잡아먹었던 유년의
아련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다. 매일
오가며 보았던 송도해수욕장입구의
자유의 여신상을 소재로 작업해
보았다. 지금은 새 단장을 한 모습으로
바다가 쪽으로 조금 옮겨져 자리하고
있다. 어느 듯 시간은 이런한 기억을
남긴 채~ [작가노트]



이현정

나의 도시 나의 고향 20호_화선지, 먹

영남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영남대학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졸업
대한민국신진서예가 3기 작가

한) 포항여성문화회관, 포항벗미리학습관
와 다수 출강 / 이현정캘리그래프Feel 대표

포항시 북구 원호공원길 39
이현정캘리그래프Feel
010-8494-5544

나의 고향 포항은 산이 있고, 바다
내음이 있는 여유가 있는 도시이다.
나는 그곳을 사랑해서 이렇게
바라보며 살고 있다. 글 내용 중 꽃은
자유로운 형상의 한자로 표현하였고,
바다라는 풍경을 파란 꽃으로
형상화하였다. [작가노트]



장미화

포말의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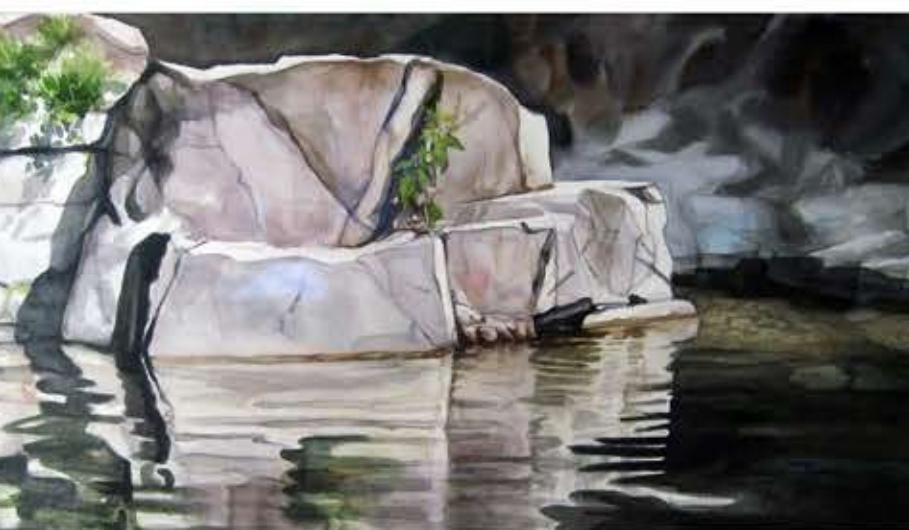
63×49cm_acrylic on panel

미술학사(2009년)
이학사(1985년)
포항호텔아트페어 운영위원장
아트페어 및 기획전 정기전 다수출품
한) 한국미협 포항구상회 이트포항운영위원회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9번길 58, 늘푸
른마을 101동 2005호
010-8278-1743

내고향 성주
참외의 고장!

꽃망울 터지는 삼월
부영새 우는 밤

찬기운 푸른 달빛에
이득히 늘어선 비닐하우스는
포말의 바다처럼 보였다. [작가노트]



정송자

여름인상

변형 30호_watercolor on paper

영남대학교 서양화과 일반대학원 졸업
개인전 4회

한)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수채화 오월 회, 경주 여류작가 회
작업실: 덕수동 문화로

포항시 남구 자곡로 294 호자 그린 아파트
2차 217동 604
010-8569-8789

유년의 기억은 많이도 더웠다.
여름날이면 마을 강에 자주 갔던
기억들에 돌 밑 발을 두발 담그면 시려
소리치 메아리는 돌아오고 옛날엔
여름날 물도 많았던 그 강 물빛을 다시
그려본다. [작가노트]

정운혜

골목길 10P_watercolor

공모전 비구상부문 특선 1회, 입선 2회
공모전 구상부문 특선 4회, 입선 12회
2005~2019년 수채화 오월화전
초대전 및 단체전 60여회

현) 미협회원 수채화 오월회 회원

포항시 북구 양학로 70-30 101동 1908호
010-4131-1182

어릴적 고향집 골목에 풀담길의 기억,
그 기억이 정답고 행복하게 하네요
[작가노트]



최수정

1980년 개복치
53×36cm_acrylic painting

계명대학교 서양화전공
개인전 3회

현)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계명회, 현상회, 인물작가회

포항시 북구 전마로 90번길 33 104-2301
010-9355-0956



최복룡

내 고향 형산길 53×45cm_oil color

개인전 5회(1993, 1999, 2001, 2002, 2019)
경북대전, 신라대전, 초대작가, 운영, 심사
위원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 조현
장우간미술상 운영위원장, 심사위원 / 경
주문화재단 특강교수 및 위역대, 모향대, 미술
선린대 의대 및 겸임교수

포항시 죽도동 양학천로 31~3
010-4520-4802

30년간 형산길(1986~2016)을 지나며-
직장과 학교를 오가며 4개절(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 1992년 5월의 출근 길에
봄이 완연히 헛별을 품을 때... 휴일
다시금 그 장소를 찾아 스캐치하고
제작한 작품이 있었다. 지금의 나는
시간의 연속 속에 60순의 세월 속에
인간이지만 그때 그 장소를 지나는
사람들... 안강, 영천을... 그 장소인
환경의 풍경 양동과 인동 강변의
경치는 없다.

[작가노트,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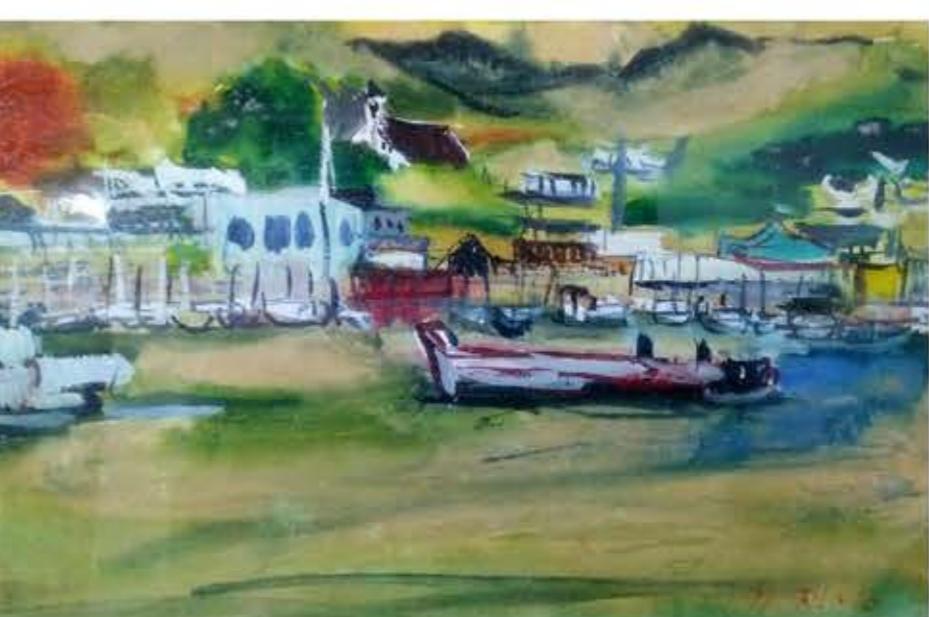


최재영

71년의 감포항 4P_수채

계명대미술대, 동대학원 졸업(서양화전공)
개인전 8회(서울, 대구, 울산, 마산, 포항)
해외 초대전 13회(미국, 일본, 중국 등)
국내 초대 및 그룹전 430여회(한국현대미
술 100인전 등) / 찾아가는 미술관 아의 전
시회 30회(전국일원)

포항시 북구 삼호로 335 606
010-3521-4022



19세의 대학 1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아 들린 고향 감포항의 냉짜에서
선착장과 어판장의 풍경을 수채로
그린 작품이다. 그때의 내가 그렸던
감포항 모습은 39년이 지난지금은 전혀
볼 수가 없다. 마침 이 작품을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출품하게
된 것은 나의 삶대시절의 고향모습을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지역역사의 기록물로도
뜻 깊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추억을 반추해 보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림으로
남길 수 있다는 작가로서의 자부심도
함께 해 본다. [작가노트]

최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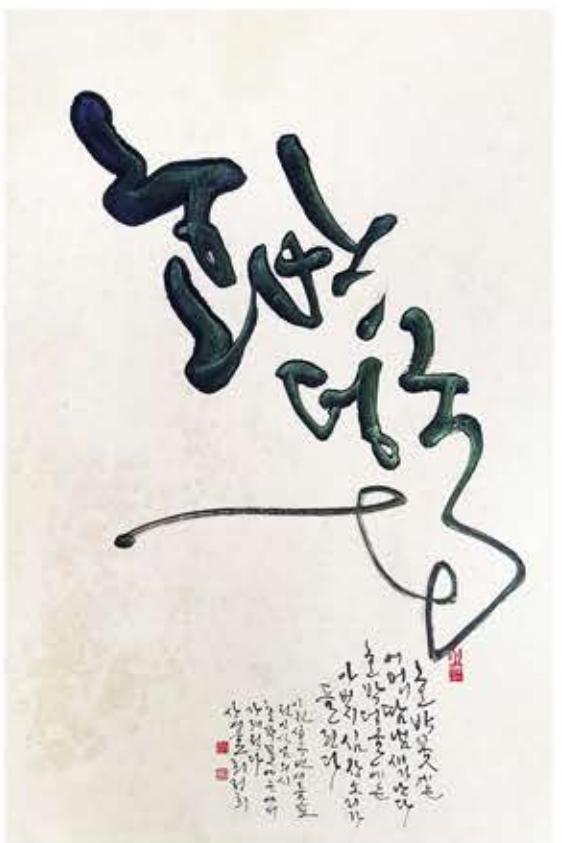
호박덩굴 45×70cm_화선지위 메탈액

영남대학교대학원 서양화과 석사과정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예문화최고위과정 수료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개인전 9회(서울, 대구, 인동, 포항)와 그룹전 200여회
최정희캘리그라피 대표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 354번길
5-107(대곡리 269)
010-6506-6639

호박덩굴: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며 신나게 뛰놀던 어린시절!
도시의 번두리 언덕에서 작은 텃밭
일구며 호박이며, 상추며, 부추
등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던
어미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놓은 전인식님의 시
'호박꽃에는'에서 한 구절을 읊겨
보았다.

[작가노트, 부분]



황정아

유연정 37.9×37.9cm_oil on canvas

계명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 초대개인전 및 개인전 8회 / 국내외 이트페어 및 호텔 이트페어 13회 / 단체전 100여회

(한) 한국미술협회, 이르인, 더프리즘, 인물 작가회P, 연지길화실 운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지로 100
010-9455-3010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들 무렵 언제나
나의 발걸음은 그곳을 향한다. 용주대
위에 세워진 유연정과 오랜 벚을
해온 3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는
그곳 운곡서원. 은행나무가 샛노랗게
물들여질 시기를 잘 맞추어 아침
일찍 회구박스를 챙겨온 나는 맨버스
위에 스케치를 마치고 빛이 떨어진
마당부터 색칠을 하기 시작한다.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유연정을
찰하고 샛노란 물감을 붓에 들킵니다.
캔버스 위에 얹는다. 나의 맨버스에
은행나무가 있는 유연정이 금세
들어앉아있다. 이제 등 뒤의 행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작가노트]

한승협

역사앞에서-새참

33×56cm_장지에 수묵

경북대학교 미술과 졸업.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졸업
대구시전 운영위원장임. 초대작가(2000~)
경북도전 초대작가(2000~)
신라미전 초대작가(2017~)
초현 장두건미술상수상(2013)

포항시 북구 우창로 166 창포메트로시티
207동 1902호
010-8486-4177

어린 시절 시골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렷이 기억나는 것이 있으리라.
지난 앨범을 펼쳐보니 재밌는 사진
한장을 발견하고 그려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저런 지나간 사진을
보니 웃음이 나온다. 요즘 스마트
폰 태블릿pc등 스마트기기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은 사실이다. 친구
대신 스마트 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을 보면서 너무나 씁쓸하고 지난
날 고향들판에서 모내기 하다가 새참을
먹든 그런 시절이 그리워진다.
[작가노트]



**한국사진협회
포항지부**

권순종 김 훈 박영길 박종하 박종환 배영희 이도윤
이문균 정관수 정규택 최영철 한성학 홍순복

권순종

뒷풀 20×30 inch_디아색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 부지
회장

포항시 북구 용당로 127-1
010-9750-5171

감나무 아래 옹기종기 나란히
서있는 장독대 그리고 아무렇게나
매달리다시피 달려있는 바지와
현ning들, 백발이 되어 옛길을
더듬어보니 그 때 그시절 그 모습들에
향수에 빠지다.
[작가노트]



박영길

모정 20×30 inch_디아색

2019포항시문화재단 초대전외 개인전3회
작품집발간1회
한국사진작가협회경상북도 추천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찰영지도위원
창원 국제사진전외 82회 그룹전
현) 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 사무국장

포항시 북구 삼호로 18
010-2265-1762

도시의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어떤 포근함과 평온함이 느껴진다.
지금은 잘 볼수는 없지만 아주멀지도
않은 시간속에는 고향의 내음이
한껏나는 모습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옛것을
하나둘 잊고만 사는 시대에 이사진을
볼때마다 그리움과 정이 느껴진다.
[작가노트]



김 훈

전통혼례

계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졸업
(사진디자인 전공)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졸업
경북사진대전 초대작가
신라미술대전 초대작가
<또 하나의 인연> 외 개인전 8회
기획단체전 80여회
김훈사진학원장

포항시 북구 용흥로 354 생용아파트
101동 904호
010-3521-8594

2009년 포항 홍해 향교의 전통혼례
모습이다. 어딘지 어색한 신랑과
신부의 모습과 평생 한번뿐인 혼례의
소중한 장면을 남기기 위해 병풍까지
들고 애쓰는 가족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작가노트]



박종하

미역작업 20×24 inch_디아색

칠광사진동우회발기인(1978)
경북미술대전초대작가
한국정수문화예술원 초대작가
신라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예총문화상수상

포항시 북구 장량중일로40
양덕삼구트리니언2차 205동 502호
010-8560-7813

포항 구룡포읍 하정3리 처갓집앞
한없이 넓고 큰바다에 둑네
아낙네들이 해조류를 채취하는
장면과 예쁜 우리 딸이 즐겁게
뛰어놀다가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이다. 해변의 파도소리와
바람소리도 인상적이다. 우리 딸을
모델로 작품을 만들었다. [작가노트]



박종환

가사리 11x14 inch

단체전 한옥(1987)
단체전 대구의 강(1989)
단체전 戰痕(1990)
단체전 架山(1992)
단체전 베트남전의 傷痕(1994)

포항시 북구 장량로113번길 30
107/1101
010-2287-2953

가사리는 1988년 '대구의 강' 사진전 준비로 금호강의 발원지인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를 탐방하던 중 가사천의 물을 식수로 길는 모습을 찰영한 사진이다. 물을 사 먹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던 시절, 사진이 없다면 믿기 어려운 장면이다.
[작가노트]



이도윤

고향 어머니 20x24 inch_디아색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한국사진문화상 수상
영남대학원 경영대 수료
경상북도 미술전람회 초대작가
포항시립미술관초대전 외 개인전 6회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33-1
천연스튜디오
010-3534-3025

지워지가는 아련함속에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내고향 초기삼간의
희미한 모습들 - 하나라도 버릴새라
아끼며 모아둔 불쏘시개로 밥을 짓는
어머니와 사랑스럽고 정겨웠던 또
하나의 가족들 - 사워으면 삶아주려고
애지중지 키워온 씨암탉, 그리고
우리집 재산목록 일호인 명명이 -
너무도 정겹고 아름다웠던 그 모든것
들을 음미하면서... [작가노트]



배영희

기다림 20x30 inch_디아색

긴 교사 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의 달과 함께
거닐던 숲속에서 사진의 길을 발견하다.
경상북도지회 회원전 3회
포항지부 회원전 3회
각종 사진 공모전 28여회 입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35,
108동 3803호(장성동, 두산위브더제니스)
010-3515-3481

먼 길 돌아 다시 찾은 고향!
동구 밖 외딴 길 초가지붕 위 노오란
인들레는 고개를 사자짝 내밀어
미소지으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노모는 오늘도 아들의 웃거지를 빨아
햇살에 말려 놓고선 언제 올지도 모를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세고 있었다. 힘겹게 버티고 서 있는
바지랑대가 몹시 애처롭게 보인다.
돌아서 나오는데 어찌나 슬픔이
휘몰아쳐 오든지 나도 모르게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 너무도
어머니가 그리워서... [작가노트]



이문균

포항역1 20x30 inch_디아셀

전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
경상북도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영남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새하얀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55-140
이지팜
010-3917-5100

1918년 10월 31일 경주-포항구간이
개통되면서 포항역이 영업을 시작한
이래, 줄곧 포항시민들의 어머니
품속 같은 역할을 해온 구역사가
2005년 4월 2일 홍해읍 이인리로
역사가 이설되면서 옛 기억 속으로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며,
눈 오는 날 구역사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보았다. [작가노트]



정광수

어린 날의 보물들

60×90cm_pigment print

2018 제2회 사진의 섬 송도
2019 제21회 포항 국제 이트페스티벌
포항 사진예술진흥원장
2019 제3회 사진의 섬 송도 운영위원장

포항시 북구 대곡로 7 창포아이파크
103동 1001호
010-9232-0615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망까지 말타기 놀다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동산 그
놀이터에 올려 퍼진 노래, 잊지 못할
어린 날 보물들을 끄집어낸다.
[작가노트]



최영철

밭갈이 20×24 inch_디아색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초대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장역임
한국영상동인회회장
전수사진대전초대작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546번길 14
한미아파트609호
010-3828-7162

농업의 현대화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재래식 작업현장을 스캐치하였다.
[작가노트]



정규택

그물손질 20×30 inch_디아색

경상북도 사진대전 초대작가
경북도전 특선등 전국사진촬영대회 및
공모전 다수 수상
포항포은중학교 초대교장 역임

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교육전문위원,
한국영상동인회 전국 수석부회장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734번길 30
010-9030-2201

마음을 나누는 고향마을 어촌풍경
하늘은 푸르고 햇빛은 쟁쟁
미세먼지 마스크 선글라스도 사치용품
장갑하나 모자 하나면 충분하다.
고향마을 그물손질 오늘도 함께한다.
우리 평생 내 곁에서 미래를 열어간다.
일과 일을 즐겁게 나누는 옹기종기
풀앗이
등언저리 땀내음이 온몸을 적신다.
어촌의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 간다.
[작가노트]



한성학

고부의 정 20×30 inch_디아색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대한민국사진전람회 초대작가
경상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신리미술대전 초대작가
백제미술대전 초대작가

포항시 남구 문예로167 신흥만선 101호
010-4803-1166

별스럽던 앞집도 있고, 옆집도
있었는데, 엄마와 딸처럼 정겹기만
했던 할머니와 며느리인 어머니,
어머니는 천사였을까?
아니면, 병어리 삼년 귀먹어리 삼년,
봉사 삼년 이었을까? 아직도 궁금한
그 분들의 그 모습들을 연상해보며 그
때 그 시절 나의 살던 고향속에 한없이
끌없이 취해본다. [작가노트]



홍순복

농촌 소경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2014년 영호남 예술교류전 참가
2014년 예술로 하나되는 대구경북사진전
참가
그룹전 및 단체사진전 다수 참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123번길 28
(창포보성) 103동 101
010-3590-9025

농촌에서 농한기에 노인을 주제로
소일거리로 작업하는 노인의 삶을
작품으로 표현함. [작가노트]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

김동현 김만수 김말화 김성자 김일광 김재호 백명자 손달호
손진숙 송준규 오낙을 유 진 윤석홍 윤완수 윤혜주 이말용
이순혜 정사월 조혜전 차영호 최부식 하재영 한국건

자율리 이발소

언제 동안 부풀리 끌어 죽고 있다
마을은 웃자면 해물을 품산이 두고
남여가는 해안을 가득한 거친 바다
이루 새벽 물을 재끼하고
조망한 후에야 시작하는 일은
등을 난을 드는 바다 해변 풍물에는 차이인
우자며 흥 걸기 벌 기울여온
절 떠는 그늘과 같이 잘어 잔에
기운과 물과 풀을 일구면서
그런 잡지 같은 풍경과 스며드는 동안
까까마루가 물에서 뛰고
가을 푸른 바다를 한 번의 놀이
고도의 풍사장을 바라보자
한번에 누워 기운과 기운하고 있던
아래에서 짐승은 뒤를 기울여온다.
우! 아랫날 기운들이 기운까지는 풍경
기운을 기운처럼 풍경과 물과 멀고
여기 물과 기운을 주고는
기운은 기운에 기운과 물과 멀고
기운을 기운처럼 풍경과 물과 멀고
또 안 기운 물과 물과는 능막 사랑

동해국민학교

김 만수

풍향계가 넘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붕 낮은 숙직실 옆
급식소의 석탄 더미 양철통이
철봉대까지 굴러가고
아이들은 꽃의 티끌 날리며 하고하던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까아만 분꽃씨를 품은 꽃과면서
여름은 아빠아빠 접하고 있었습니다.

구룡포*

엄마 냄새가 난다
청각, 파래, 미역 온갖 향기
마음 조각들 한 곳에 모으는 햇살 같은

해무가 천천히 걷히듯 느리나
마을 앞 이정표였던 돌문처럼
고향 길 펼쳐 열어준다. 그
느리고 정겨운 움직임이
옛 꿈을 일깨우는 소요로 번진다

항구가 어스름을 토해내고,
부스럭거리며 등대가
제 몸속에서 뱃길을 꺼내는 즈음
심해어처럼 가라앉아
숭숭 바람 난 제 가슴을 들여다보지만

구룡포의 손을 거치고 구룡포의 어깨를 빌려
온화하게 때론 거칠게 살아 펼떡대는 구룡포,
오래 혹은 멀리 있다 달려온 동창들의 포말조차
더 높이 솟구치는 바다의 사유思惟가 된다

골목이 가로등을 내걸고, 따순 개개는 문 내리고
뱃고동 문어 풍치 몇 마리 구워놓고
잔 부딪치며 던지는 뜨뜻한 말 한마디
“우리 친구 아이가”

*고향 친구 닉네임

내 고향 가을

김 성 자

바다에 가을이 들면
언한 젖어들 견결읍으로
왕릉처럼 오경이 쌓이는 부두

풀목마와 언덕마파 산마루까지
총총이 단풍으로 절어 얼룩면
번득이는 삼광 깊어지는 숲

벌안간 여우비 새리는 활
사광 소리, 그릇 소리, 봄이카 소리
여비귀환 전쟁피, 소리 소리들

세상멀리 아버지 저역 배 뒷과
풀 때 맞춘 어린마파 만선기 팔아도
의전 뱃자리 민 등우파
아버지 뱃전 오르지 않았다

풍어기 어머니 숲 오경이 물렸과
해 파가도록 쟁고, 걸고
밤 이슥토록 퍼주고, 품어주는 은
어머니 주덕주덕 거령보이 되었다

어편한 고향, 그려운 사람들
마되어 포불로 빌려오는 데.....

김동현

김만수

1967년 영일만 출생
2003년 「포항문학」 신인상 수상
2008년 〈문장〉 신인상 수상
포항문인협회 회원, 시동인 푸른시 동인, 진심문학회 회장

포항시 남구 효자로 70
010-2680-3010

지울리는 참 아름다운 곳이다. 1914년 봉화산의 동남 해안 기슭의 어촌마을 지을 知乙과 대벌이'를 합하여 '죽전竹川'이라 했다. 지울리는 숲과 물이 좋아 새들이 알고 많이 서식하기에 불여진 지명이다. 대벌이는 갈대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 여남천汝南川의 하구에 형성된 어촌마을이다. 대나무가 많은 벌에 있다고 하여 '대벌이'라 부르게 되었다.

김말화

포항 출생
한국작가회의, 포항문협, 해양문학상 수상
장시「송정리의 봄」
시집「소리내기」「오래 희어진 기억」「종이눈썹」「산내동신」「풀의 사원」 외 다수

포항시 북구 학천로 103, 106-705호
010-4519-3590

풍향계까 넘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붕 낮은 숙직실 옆
급식소의 석탄 더미 양철통이
철봉대까지 굴러가고 ...
- 시 <동해국민학교> 중에서

김성자

초등학교 교사 역임(42.5년 정년퇴임)
초등학교 전문 상담사 근무(7년)
2002년 영상시집 「풀꽃」으로 작품 활동, 포항소재문학상 수상
시집 「여새」「여우별 너는」, 산문집 「이름다운 날」

포항시 남구 상공로 89 상도동 18-103
010-9273-7351

고향하면 대부분 봄꽃들 곱게 피고 올긋불긋 가을단풍 물든
고향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내 고향 구룡포는 어린 시절
(1960년대) 어장이 좋아 어획량이 풍부했고, 가을이면 오징어
풍년으로 온 마을이 덕장이 되어 인구 4만이 넘어 활기찬 삶을
살았다. 이 가을 푸른 바다 내려다 뵈는 언덕에 서면 어릴적
분주했던 고향 모습과 옛 사람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놀이터

... 나는 아직도 섬안들과 형산강 언저리를 기웃 거리고 있다. 옛 모습으로 남아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를 키운 섬안들, 가난한 이웃들, 외로웠던 시간들 사이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거닐 것 같다. 키다리 미루나무, 구강 곁으로 난 오솔길, 메기와 가물치가 우글거리던 둑벙, 비만 오면 진창이 되던 칠성강변, 개개비, 뜰부기, 집을 찾아 헤매던 갈숲, 형산강 모래섬... 나는 이 놀이터를 쉬 떠날 수 없을 것 같다. 여전히 내 시간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김일광 「놀이터」, 산문집『호미곶 가는 길』

그 동네 우체국 / 김재호

그 동네 우체국은
서울 집을 지나 앙장장 가기 전
면에서 하나뿐인 중학교와 고등학교 옆에 있지
전보를 보내고 늦은 편지가 도착하는 곳
누이가 보내온 소액화은 냉보리 되어
동생들 깨나가 되었지
그 깨나가 싶은 누이의 피명이란 걸 알턱이 없던 소년은
작전의 임명거리에 만족했었지
집집마다 저항하기가 업던 시절
누이는 우체국으로 전화를 걸어왔지
전화선 따라 물먹이는 누이가 모였지
그리고도 한합을 지나 동네 이장님댁에 전화선이 걸리기 전까지,
우체국에서 술 마시고 걸어도 달을 중학교인 담강은
나라님 계신 곳의 당장보다 놓아
고개를 숙이고 걸기 일부었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모른지면
우체국은 누린 줄마다 둘린 신음이 오고
돈 벌려 도회지로 나간 누이의 아버지
술밥 짓는 당조각의 달콤함을 달콤으로 네달렸지

우체국은 소문을 만들지 않고
서울의 구름도 데려오고 제주의 대방울 소리도 불러오는
배달부의 자전거 배달부처럼 소문 없이 그렇게 둑고 둑다

자전거를 갖고 나가는 배달부의 가방 속으로
봄이 오고 여름이 왔지

따뜻, 따뜻
전보 있습니다.

포항 사람으로 산다는 것

산다는 게
고초 당초 맵기도 하더라 꼬들꼬들
달작지근한 비린 것들의 슬픔이며
때론 땀 흘리며 살아온 이마에
쏟아지는 한 줄기 냉수같은 바람 부는 날 있어
앞앞이 놓인 이 그득한
한 사발 물회를 비우며
팡 사람이라면
만경창파 팡!팡! 터지는
저 붉은 해덩이처럼
다시 한 번 거뜬히 일어서는 것이다

감씨

감나무 밑이 할머니의 해우소라면 빨래터는 어
머니의 해우소이다. 속을 털어낼 곳이라곤 이모
밖에 없다. 이웃에 두고도 늘 허기졌던 자매끼
리 대화를 빨래터에서 속까지 쏟아낸다. 어머니
가 마음 바닥까지 짜내면 이모는 소리가 새어
나갈까봐 빨래방망이를 더 세게 두드린다. 어머
니는 빨래터에서 빨래만 빠는 것이 아니라 갑갑
한 마음도 훌훌 치댔다.

수필「감씨」중에서

김일광

초등교사 정년퇴직
1987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당선
『귀신고래』『조선의 마지막 군마』『강치야 독도 강치야』『석곡 이규준』
등 30여 권의 작품집 발간

포항시 남구 송림로21번길 7-7(송도동)
010-2514-8759

어린 시절, 내 놀이장소는 형산강과 섬안들 곳곳에 남아 있던 둑벙이었다. 지금은 아파트, 집, 도로가 들어서 완전히 변해 옛 풍광이 사라졌다. 제방으로 물길을 가두기 전에 형산강은 형제산을 지나면서 자유롭게 흘어져서 영일만으로 들어갔는데, 1913년 일제 때, 제방공사로 길을 가두고 섬안들을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 자유롭게 흐르던 물길의 흔적이 내 놀이터였고, 그중 하나가 구강, 즉 옛 강인데 지금은 포항시민들이 잘 가지 않는 커다란 뜻으로 남아 있다.

김재호

창조문예 시, 영남문학 시·시조, 아림문학 동시
한하운(하운) 문학상 대상
순암 인정복 문학상 동상
창조문예 동인, 영남문학 동인
아림문인협회, 경북문인협회, 포항문인협회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76, 101-1001
010-9331-9232

나의 고향은 김제다. 김제 평야가 유명하지만 실상은 세끼가 놀 숙제였던 고단한 유년을 보냈다. 벽골제는 소풍날 단골이었고 벽골제 앞에 있는 신털미 산에 대한 전설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작은 시골 면 소재지에 있는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추억한다.

백명자

2000년 「포항문학」 신인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 회원

포항시 북구 장량 중앙로 117 장량5단지 505-1005
010-5548-3758

교원문학상(2011년)
한국애인문학상(2017년)
수필집『소쇄원』(2016년)
전) 중등학교교사

포항시 북구 양학로10번길 12
010-6533-8951

같은 동네 사는 누나로부터 택배가 왔다. 보자기에 싼 합지박 안에 담긴 홍시였다. 식탁 위에 올려 놓자마자 아내는 보자기를 풀었다. 홍시 냄새보다 엄마의 냄새가 먼저 물어나와 나를 맞는다. 아내는 엄마의 냄새에도 아랑곳없이 맛깔스런 홍시를 냅씩 깨룬다. 달다고 야단이다. 이따금 감 씨를 식탁 위에 뱉고는 이렇게 까맣게 어물어 졌느냐고 중얼거린다. 저 감 씨는 아무리 봐도 엄마의 가슴 속에서 어울었던 당신의 응어리다.

멸곡 滅谷

버스로 한 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도 고향땅을 밟기가 쉽지 않았다. 아카시 꽃향
기 짙은 오월부터 별려오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
쬐는 팔월 중순에야 찾게 되었다. 고향 인자골
로 들어가는 어귀는 두 갈래다. 그 한 갈래가 멸
곡滅谷이다.

멸곡은 임진왜란 당시 이여송이 이곳 산세가 명
장이 날 곳이라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혈맥을 끊
었다고 해서 붙은 지명이라 전해진다. 외적의 침
략을 받지 않고 강산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면, 나
라를 빛낼 홀륭한 인물이 태어났을지 누가 알랴.
멸곡의 길 양쪽에 늘어선 고목들 가운데에는 포
구나무가 터줏대감처럼 좌정해 있었다. 해마다
푸른 열매가 수없이 달리곤 했다.

부분

멸곡봉우리

황금 삼족오 설화암 흉금오산
나불 욕국성 바라보네
내유년의 푸른 꿈 깨운 현월봉 불빛이며
온 산울리는 땅금 흐로
그 옛날 추억조각 사정 호수 운비늘로 철강 철강
화나비되어 속으로 솔아간
여인호카 술걸 술이었고..
산호흔식 말을 아내와의 천년 사랑 맹세담아
하늘로 우뚝 솟은 소울한기 풀랑
초성으로 물린 고산의 펄렁 일고 싶고
충절공작의 흔을 담고 윤여 청운 산모옹이
달여락에 화장기 없는 암울로 북쪽 향해
되어온 애달픈 배목울은 진향에
가던 날개 염수네)
* 초서의 대가 황기로 선명 아호
** 삼우중 행분인 애운 절대 선생 시호
- 송광주 *포항소재문화학당 시부문 장원, 최우수상>
*제작 "시인정신, 시부문 선인상 수상

인동 꽃. 1

울 엄마
봄꿈에 청 보리 익던
산마을 끽기밭에
하얀 인동 꽃

소쩍새
엇 저녁 그 울음에
그리움 노랗게
저며 피는 꽃

등 뒤서 놀래 키던
봄 누나 냄새
찔래먹던 밭이랑에
진동하는 꽃.

*1961년 10월 1일(음) 경북 포항시 가북면 울산리 166번
지에서 출생.

싸락눈 내려

내 자란 집근처
무대조명 꺼지고 객석엔 꼬리 잘린 박수소리

치열과 격정 한 송이씩 나눠 든
관객들 떠나고

아쉬움과 혀탈을 쟁겨 넣은 악기
서둘러 분장실을 나서는데
예보 없던 눈이 내린다

어디쯤일까
어디까지 왔을까

내 어린 날 꽃동산엔 빌딩숲이 자라고
떠난 이들 그리워 싸락눈 내리는데
옛 그림자 자욱한
고향은 그저 마음에만 지닐 일

희끗한 머리칼에 싸락싸락
싸락눈꽃송이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손진숙

2006년 《수필문학》 추천완료
2014년 《개간수필》 추천완료
수필집 《신록처럼》 《향기에 점기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새천년대로 1020번길 12, 113동 406호
(두호동, 우방산천지타운)
010-2666-6561

멸곡(滅谷)은 양자동역에 기차를 티려 갈 때, 강이나 들에 갈
때, 반드시 지나다녀야 하는 동구(洞口)다. 양동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타지로 드나드는 관문이다. 봄이면 아카시아
꽃향기가 코끝에 진동하고 가을엔 포구열매가 첨삭을
자극한다. 고향을 생각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곳, 잊을 수
없는 마을의 출발지고 내 마음의 종착지다.

송준규

경북 구미출생.
시인정신으로 등단 작품활동
2015 개간문예지 〈시인정신〉 신인상 수상
포항소재문화학당 시부문 최우수상 수상

포항시 남구 효성로 301-2201호
010-3534-6200

황금 삼족오 설화가 얹혀있는 금오산의 달 걸린 봉우리
현월봉 불빛 바라보며 유년의 푸른 꿈을 키웠고,
흔들릴 때마다 방향을 잡아준 등대였으며,
푸른 추억과 사랑이 스며있어 언제나 그리운 명산

오낙을

61년 포항출생. 선호: 흐천(曉泉) / 빙송대 국어국문학과 / 동 대학원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졸업(석사) / 2005년 문예한국 등단. 한국문인협
회 회원. / 시집 「파이한에게 쓰는 편지」 「바람꽃」 「봄은 안 오고 꽃만
피었네.」 / 전자시집 「파이한에게 쓰는 편지」 「눈물이면 다 같은 눈을
이던가?」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울산 남길 103-1
010-3513-9310

뒷밭에 보리 수염이 까칠하게 약 오를 무렵, 소마당가에
피워둔 모깃불에서 가듯가듯 밀 쌔리 냄새가 춘곤기의 허기를
부추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펄레 순이 동네 아이들 눈을
피해 야풀고, 아이들이 더 이상 펄레임불을 뒤지지 않을 무렵,
그 덤불을 타고 인동 꽃 만발하던, 그런 여름이 있었습니다.
옆집누나 분향만큼이나 인동 꽃향기 곱던 그 시절, 유월
보릿고개는 엄마만이 감당해야 할 높인 줄 알았고, 반질반질 잘
닳은 명석에 둘러앉아, 보리갱 죽이며 자주감자 틈성듬성 박힌
셋노란 조밥으로 저녁 식사를 할 때에도 우리 칠남매, 엄마의
고단한 표정 한 번 살필 줄 몰랐습니다.

유진

부산출생. 신라대학교 음악대학 관현학과 졸업.
2003년 월간 「조선문학」으로 시와 수필 등단.
시집 「참선일지」 「가버리는 것들과 떠나야하는 것들」 외
조선시문학상, 국제문예교류협회상, 포항문화예술인상.

현)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 전담
포항시 북구 중총로 309번길 11-1
010-4717-1564

부산예술회관 오케스트라 연주를 마치고 나왔을 때 싸락눈이
내렸다. 떠난지 30여 년, 삶은 어디까지 왔을까? 사람도 거리도
집도 낯설어진 부산진구 서면 일대는 현란한 네온사인에
묻혀있고, 그리운 옛사랑의 추억은 머리칼에 달라붙는 싸락눈
같았다.

고향 경전

고향 앞산 돌계단을
오르내리며 책을 읽었다
할아버지편, 할머니편, 아버지편, 어머니편
수십 번을 듣고 읽어도
늘 새롭고 재미있는 책이다
왕복 일 킬로 미터
그다지 두텁지 않은 책이지만
그 어느 경전보다
푸르고 빛나는 책이
고향 앞산에 있다

야시홀 한 상

이백 살 배롱나무 꽃그늘도 한 상이라네
차 한잔하고 가시개나
죽도 배롱꽃은 어찌자고 저리 곱게 피는지
노을이야
불맛 들수록 춤판이랬지
제깐엔 꽃물 든 주자승 가사 자락이 낫다지만
여지껏 담지 못한 色 하나 얻기 위해
내향 깊숙한 곳까지
집개발로 건져 올리는 하루해의 지느러미
뱃고동의 리듬을 기억하는 어스름과
짙어질수록 더 뭉실해지는 물가잠 골목길마다
더도 덜도 아닌
서로 등 비빌 줄 아는 맛들이 있어
노을이라는 한 상,
그 한 상이라는 꽃그늘
저 꽃 피우려고
예물로 받은 앞바다마저 창마다 걸어두는
야시홀이라는
또 한 상 걸쭉하겟네.

그 강이 깊어질 때

가을은 마당을 지나 부엌문을 열고 깊숙이 왔다. 어머니는 밥솥뚜껑을 열고 잘 여문 강낭콩 한 주먹 휘익 던져 올린 뒤 풍구를 돌렸다. 돌획에 으깬 들깨와 시래기를 품은 무쇠 솥뚜껑이 들썩거릴 때마다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다. 해 질녘이면 먼 언덕 위의 수녀원을 향해 깨억꺼억 우는 그들의 울음소리도 오래도록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저무는 강 위로 말간 슬픔이 되어 무서 리처럼 내려앉았다.

수필 「그 강이 깊어질 때」 중에서

윤석홍

1987년 〈분단시대〉로 작품 활동
시집 「저무는 사는 이름답다」, 「경주 남산에 가면 신라가 보인다」, 「밥값
은 했는가」, 여행 산문집 「존 뮤어 트레일을 걷다」 등
포항시 북구 중앙로 419번길 21, 105-1703(대동우방타운)
010-3821-8928
고향 앞산을 오를 때마다 지금의 내가 있도록 경전 같은
말씀과 책읽기를 가르쳐 주신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담았다.

윤완수

2008 〈아림문학〉으로 작품 활동
포항 남구 서동로 142-14 102호
010-3521-2408
영덕의 강구, 축산 일대를 야시홀이라 했다. 후에 애성,
영덕으로 개칭. 대개 뜻지않게 유명했던 것은 물가자마리는
미주구리였다.

윤혜주

포항 출생
2015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작품활동
포항시 북구 중흥로 329-1 106-705호
010-2505-2745

이말용

포항시 장기 출생.
동리목월 문예창작대학 졸업.
국제 펜클럽 회원,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조협회, 포항문인협회, 한국문
예춘추문학회
시집 「장기 꽃 시편」 「이팝나무」
포항시 북구 용두산길 74, (동아금강) 102동 105호
010-2505-8934
내고향 장기는 조선시대 유배지다. 한양에서 멀고 먼 산골마을,
다행히 바다와 산야가 어우러져 아담하고 조용한 삶터,
이곳에 우암 송시열님과 다산 정약용님께서 오신 것은 새로운
학문과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산의 「장기
농가 10장」으로 인해 당시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음이 참으로
다행이다. 나는 이분들의 정서를 이어가고 싶다.

다산 유적지 장기 長髮

이 말 용

신유년 1801봄날 멀고 먼 장기땅
외로움 달래주는 아침 만들래 꽃

장기숲 꽃 향기 장기바다 갈매기
고향에 온듯 반기는 걸 어찌하랴

어느날은 농부 다음날은 어부
파뜻한 인심모아 보릿고개 보듬어

장기농가 10장※ 에 곱게 옮겨놓고
현 縿에 심어놓은 다산의 정 真

※ 다산의 한시

유월의 모시적삼

- 충혼탑 앞에서

천둥소리 한 귀퉁이 짹어내다
천지에 놀란 찔레향이 아리도록 매운 날입니다
무더기 무더기로
아까시 마저 떨어지는데
유월의 하얀 모시적삼은 충혼탑 앞에 서 있습
니다

시퍼렇다 못해 먹빛이 되었던
60년, 다 받아냈기에
아버지,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국화입니다

아니, 그 먹빛의 한(恨)
한숨으로 쌓아

부분

엄마 이야기 속에

정사월

가을 농동장에 엄마가 된
내가 서 있다

실차 나는 삼월이면
사금치까지 넣고 쑥 먹었다던 흰죽,
밤꽃 주워 모기풀 놓았던
풋콩 같은 엄마의 옛이야기

내가 늘어놓는,
콩발 막고
보리밥아 쫒던 엄마의 시간들은
고개 숙인 토종 수수처럼 맛있다

흑백영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나를 찾는다

땅꼬마

자꾸 눈에 밟히는 고사동
고래 뱃속 같은 기와집에
어르신 헛기침 소리 피해
단풍나무 홍초 다알리아
옆구리를 쥐새끼처럼 파고 드네

온 종일 종종거리는 엄마
뒤꿈치만 그렇한 눈으로 쫓다가
땅강아지 같은 손가락으로
지 주먹만큼 땅을 파네
구멍마다 장미꽃잎 뜯어 넣자
헤벌어진 입에 단침 고이네

저려오는 오금 풀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사랑채 기웃하다 뒤란으로 달랑달랑
다시 숨어든 화단에 나비가 되네

내 놀던 옛동산에
차 영숙

오늘 다시 서너
모압 MOAB 뚝뚝 맞은
공동묘지

민적은 키

논 밭이며방 죽 이 땅산등 성이과 해 쳐
지고를 어진 집 들의향 해와행 두 나 무노
나 무겁나 무그 늘과집 시 꽃집 시돌리 는
흙벽 둘 담글 옥 이 미셸 기오보 복한성 얹
이너 머나살 덩의 딸집빨 뱃돌까 지
흘딱.

곧하나같하게 날 저울 때마다 깜빡. 깜빡.
우선기 를 타전해주는 송신기여

나는 이미
추억마저 망가진 수신기였구려

* 가곡 「옛 농간에 올라」의 가사 일부 부분. 이은상 작사
** 새 고향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 생명로 오송제2생명과학산업단지」로 변태되고 있음.

이순혜

1967년 포항 출생
2013년 포항소재 문학 수필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7년 국가보훈처 보훈문예突出현시 최우수상
2018년 2019년 경북문화 전국수필대전 수상

포항시 남구 효성로 55 혜자풍림아이원 101동 701호
010-4519-3590

기억이 형성되고 있을 때부터 현충일이면 수도산에 올랐습니다.
10시 사이렌 소리와 북녘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선 굽은 한
모습입니다. 저의 몸과 마음이 자리면서 충혼탑 아래 서성이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평생 가슴에 물어 두었던 아버지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지 못하고 살아 있다는 것에 죄인이 되어
위리안치 하셨던 아버지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쉬시라고 헌사를 썼습니다.

정사월(본명 정명숙)

2011년 『자유문학』신인상 등단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0번길 21
010-9600-0331

쉬는날 엄마랑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할때면 늘상 듣게되는
옛 이야기가 있다. 처음엔 관심도 없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듣지도 못했는데 점점 그 이야기가 재미있어졌다. 겪어보지
못했지만 머리속에 무언가가 그려지고 아련한 그리움이
녹아있는 이야기. 언젠가는 영영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정겨워진 단어들을 옮겨 보았다.

조혜전

1995년 『자유문학』으로 작품활동
시집『빛들이 지어 놓은 집』『기린 산방』
포항시 북구 축장로 73번길 20-27
010-9353-7746

전주시 고사동 주택가 골목을 벗어나면 역이 있고 교통의
중심지이자 상가 밀집 지역이다. 지금은 역도 이전 되었고
영화의 거리가 되어있다.

차영호

1986년 『내륙문학』으로 작품 활동
포항문인협회 회원
시집『이제 내린 비를 오늘 맞는다』『애기없는 부채』『바람과 풍』 등
포항시 남구 성공로 18번길 26-2 301호
010-6235-8109

내 고향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 생명로 오송제2생명과학산업단지」로 변태되고
있음.

토함산 자락에서

따신 날, 불국사 가는 길에 벚꽃 봉태기로 번지자
벌, 떼로 달려들고 온 천지에서 관광버스들도 모여들어
자하문 너머 부처님 만나러 가면
우리가 탈 시내버스는 늘 모자랐다
입실, 영지에서 오는 버스는
아사녀 다방 앞에 이르면 콩지를 시루가 되었다
성덕 신문왕릉 근처 휘어진 데서
여자장 차벽 탕탕 치고 운전수가 운전대 획 획 꺾으면
우린 쓸렸고 무릎에 동개진 책가방들이 휘청거렸다
버스라디오에서 양희은은 '아름다운 것들'을 불렀고
밤새 한글을 지운 독립선언서를 외우며
경주 학교로 갔다

해 그렇지 절어진 저녁답
관광객들은 '언제 또 오노, 언제 노나'면서
장구 목청 더 높게 태우며 떠나갔다
한해 고박 눈밭에 코 박고, 공장살이로 모은 것들 쟁겨
겨우 놀라온다는 것을, 그 아쉬운 홍겨울을
이해한 것은 일자리 찾아 집 떠난 지 수십 해 흘러서였다
관광객들이 돌아가면 우리는 아사녀 다방 테레비 앞에서
까만 피 흘리며 한 방 날리는 권투선수 홍수환에게 열광했고
오동나무 술집에서 4전 5기를 외치며
앞 모를 내일의 막걸릿잔 비웠다

이제, 모든 인연 떠나가고 지나갔다
오동나무집 구직에 앉은 우리를 보고
'눈공 싶어가 보이 나네'라며 나무라시던 누부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할머니가 되었고
오지 않을 아사달 기다리던 다방 문 열고 떠난 친구들은
겨울밤 동네 느티나무에 가득 달리던 별들을
어데서 보고 있을런지
지금도, 범영루 북소리 들려오건만
돌아오는 이 없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살 초등학교의 나무들만 듣고 있다

고 흥

하 21 08

동요가 지령이처럼 꿈틀거리던
텃밭으로
꽃들은 놓이고 놓았나.
내 몸속으로 스민 텃밭 꽁꽁기
되서 깊길 할 데
방울소리 흘릴 것 같았던
내 몸을 풀라타너스 이파리 암에니
세들은 짓을 짓고 떠났는데.
나는 그 그늘에서
송아리 등짝에 달라붙은
이파리와 등메리를 꽂았나.
강 건너 산은 냐며
멀리 떨어져 흘렀어도
내 코 코뚜레동 담이고 있느
같니 란 열매. 고 흥!

동빈교에서

비닐 말은 솟곳
송림 모래 속 묻어둔 채
파도 타고 조개 좁다
껍질 잎은 번데기로
아랫도리 달랑대며 돌아오던 길

시험선 내린 아버지 찾아간 신선옥
분 냄새 좋은 색시가 비벼주던
까무 달코롬한 자장면 면발보다
등판에 엄마손이 더 굽게 새겨지던 곳

옛날은 숙성된 비늘 내음같이 아련한데
청어떼 들물의 전설찾아
바다로 가는 어부의 손길 부산하다

머무는 듯 하지만
쉼없이 제 몸 부딪혀 소리하는 물결로
동해의 검푸른 고기들 마중가리라
북해의 홍연어도 불러 오리라

최부식

전 포항MBC 편성제작국장 / 시집 「봄비가 무겁다」 / 역사서 「그들의 경주 우리의 경주」 등 저술 / 전) 포항문예아카데미 원장

한) 포항문인협회 회장, 경주문화원 및 경주박물관대학 이사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57, 101-904(금호어울림) / 010-4250-8109

하재영

1990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당선
1992년 〈계몽사이동문학상〉 장편소년 소설 당선
시집 「별빛의 길을 뒤는다」 「바다는 넓은 귀를 가졌다」 등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06 112-1003호
010-4523-4285

한국건

2012 〈현대문예〉 신인상 수상
포항문인협회 사무국장 역임
포항문예아카데미 원장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70 109-106
010-4808-6565

70년대 중반, 고향 경주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다.
국가가 경주의 역사문화를 재정비하고, 보문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펼 때였다. 어린 우리는 관광버스가 지나 때 손흔들기며, 길 가에 코스모스 심으며 관광객 맞이 교육'을 받았다. 토함산 언저리에서 경주로 학교 통학할 때는 관광철이 되면 시내버스들은 '관광용으로 정발'에 아침 통학버스는 늘 만원사례였다. 관광객들이 벌이는 막걸리, 장구, 춤판으로 곳곳은 유홍일색이었다. '다들 그렇게 노는가'하면서 자랐다. 모두 열심히 일하다가 어쩌다 오는 관광임을, 휴식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공연

나의 포항

인사말

포항시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포항예술인한마당 축제의 장을 “국악과 연예예술인”들이 형제의
우의를 나누며 시 승격70주년 행사에 맞춰 공연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포항시 승격 70주년, 전쟁과 건설과 변화라는 흐름 속을 영일만에서
살아냈습니다.

1500도의 쇠를 다루는 노동자의 삶.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바다에서의 삶. 육지와 바다에서 꾸려온 나의 포항, 70년의 삶을
대중가요와 국악으로 풀어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신명을 앞으로 나의
포항, 70년의 에너지로 삼고자합니다.

우리문화의 뿌리인 국악과 현대문화에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연예예술이 함께 어우러져 “나의 포항” 이란 주제로 준비한 이번 공연은
“포항국악협회” 연주단의 우리소리의 포근함과 “포항연예예술인협회”
프리스타일밴드의 퓨전연주로 양 협회 회원님들의 화합과 우정이 더욱
굳건해 지는 계기가 되고, 포항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올 한해 심신의
피로가 풀리는 연주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 12

한국국악협회 포항지부장 이원만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포항지부장 장한식

연예협회 포항지부

나의 포항-사랑과 행복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포항을 대표하는 대중가수들의 인생노래 ! 이웃들과 함께하는 포항에서의 삶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희망이 되고자 포항의 작사, 작곡가들의 인생을 담아 지역가수들이 부르는 사랑과 행복의 노래.

오프닝

청포도 사랑



중창팀(12명) 김다희, 김정화, 황영은, 김진아, 조선희, 전체윤, 최은성, 홍세호, 이상록, 김양숙, 김경민, 강지형

G#하모니



드럼: 황병일, 베이스: 배춘호



김정화(가수)

포항의 향토가수, 군복 가수로 많은 활동중. 중앙동 노래교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많은 활동 중
- 포항아리랑, 나는야 행복한 사람



김창규(가수)

90년초중 바람속의 남자 음반취입 / 가요무대 출연 2017년
대표곡: 시끌총각, 내남아 / 아이넷TV / GM.TV / 가요TV / 화이팅국민여러분 방송활동중
국회의장상 / 시의장상 / 연예협회이사장표창! / 예술인표창 / 예총회장상
- 시끌총각, 내남아



조선희(가수)

MBC 주부가요열창 대상 / KBS 도전! 주부가요스타 가창상 / 제6회 영일만축제 시민가요제 대상 / 2002 포항MBC 주부노래자랑 동상 / 1987년 포스코 청률축제 대상으로 연예인협회 회원
으로 활동 / 2018년 가요창작인이 선정한 신인가수상 수상 / 2019년 대한민국연예예술상 / 연
예예술발전공로상(모범가수상)수상 / 2019년 가요창작인이 선정한 인기기수상 수상
- 나는 행복합니다, 축제인생

나의 포항-바다, 또 하나의 삶터



1. 신 벗놀이 작곡 : 원일

신 벗놀이는 '리듬의 유희'를 위한 놀이적 음악이다. 전통음악에서 흥과 신명을 일으키는 요소인 장단을 현대적 감각으로 정형화시켜 그 위에 경기 벳노래의 선율을 테마로 차용하였다. 리듬구조에 있어서 굿거리의 중심 박을 여섯 박자로 구성하여 다양한 리듬들이 하나의 통일된 틀거리 리듬 안에서 놀이하게끔 의도한 작품이다.

2. 파도 작곡 : 김우직

전통 국악기의 음색과 서양악기인 샘베의 경쾌한 리듬이 잘 어우러져 동해바다의 힘찬 기운과 평화로운 바다의 일상을 잘 표현한 곡이다.

3. 쉬어가라 작곡:김우직 /작사:이원만

전통적인 굿거리장단의 리듬으로 비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며 살아가자는 메세지를 던지는 곡이다.

4. 난감하네 작사,작곡 : 심영섭

프로젝트 락의 '난감하네'는 2007년에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판소리 수궁가를 모티브로 만든 곡입니다.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려 한 번도 기본 적 없는 육지로 가야 하는 별주부의 마음을 신세대의 감성에 맞추어 코믹하게 재구성한 곡이다.

5. 동해아리랑 작곡:임교민/작사:이원만

우리나라에는 시대를 대표하거나 지역을 대표하는 많은 아리랑이 있다. 동해아리랑은 동해바다를 표현하고 동해바다를 지키자는 내용의 가사로 함께 지켜야 할 미래의 바다를 얘기한다.

6. 모듬북을 위한 관현악 '打' 작곡:이경섭

타악기의 강렬한 비트와 다이나믹한 관현악 선율이 돋보이는 모듬북 협주곡

함께 부르는 포항노래

함께, 다시 포항

1. 영일만친구 / 최백호 작사, 작곡

2. 벳노래 / 경상도민요 류정민 편곡

3. 출로아리랑 / 한돌 작사, 작곡



출연자

가야금:정선영 / 타악:권도균 / 타악:하동호 / 소리:곽미정 / 소리:김채은 / 타악:김선이 / 해금:황혜진
피리(태평소):김휘대 / 대금(소금):서민지 / 건반:정윤정

한국국악협회 포항지부



한국무용협회 포항지부



임원 연혁 및 주요행사

지 부 장 이원만	2019.10.24.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공연(포항시청 대장홀)
부지부장 정선영	2019.10. 5. 일월문화제 '아름다운 나라'(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부지부장 류명희	2019. 8.29. 비치아트페스티벌 '사물판굿'공연(송도 물빛누리공원)
사무국장 권도균	2018.11.27~8 <IRON HEART> 2회 공연(포항시청 대장홀)
	2018.10.27. 해오름동맹국악교류공연-12자신 해오름유람기(포항시청 대장홀)
	2018.10.19. <평화의 바다. 동해> 공연(독도문화대축제. 영일대 특설무대)
	2018.10. 시민문화행사-실내악과 사물판굿공연(영일대 버스킹무대)
	2018. 8. 2018비치아트페스티벌(영일대 버스킹무대)
	2018.6~9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10회(송도아의공연장, 영일대 버스킹 무대)
	2017.11. <Story of atomic number 26, Fe> 호치민 세계문화엑스포
	2017.10. 국악창작극 <안녕?! 강치야!> (시청대장홀)
	2017.10. 일월문화제 개막공연 <Story of atomic number 26, Fe> (시청 대장홀)
	2017. 7. 비치아트페스티벌 공연
	2005~현재 찾아가는 문화 활동
	1999~2004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1998~2004 제3회~7회 포항국악경연대회 개최
	1996. 8.10 청소년 국악교실
	1996~1997 제1회~2회포항국악경연대회
	1996~현재 단오 국악제 "창포풀에 머리감고"
	1996~1998 정월대보름맞이 섬안 큰다리 빌기-섬안 큰다리 둔치
	1995.10.1~2 제76회 전국체전 성화봉송환영 풍물한마당-효자검문소 및 포항시청
	1995. 5.30 포항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신춘국악제"-포항문화예술회관
	1994~현재 송년국악제 "우리 멋 우리가락"
	1994. 7.30. 해변국악제-포항북부해수욕장
	1994. 6.30. 한국국악협회 포항지부 창립-포항시민회관
	1994. 3.25. 한국국악협회 포항지부 창립-서경도서관

임원 연혁 및 주요행사

지 부 장 이해령	2019.10.19. 포항무용제(연오랑 세오녀 테마파크)
부지부장 윤금재	2019.10. 6. 포항을 춤추다(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사무국장 최태분	2019.10. 5. 가을 빛 아외 춤 축제(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9. 8.11. 아라축제(구룡포 아라광장)
	2019. 8. 8. 미래 춤 페스티벌(포항시 노인복지회관)
	2019. 7.28. 해변 춤 페스티벌(영일대 버스킹무대)
	2018.10.20. 가을 빛 아외 춤 축제(포항운하 플라워광장)
	2018. 7.22. 포항무용제(영일대해수욕장 버스킹무대)
	2018. 7.22. 해변 춤 페스티벌(영일대해수욕장 워터풀리무대)
	2017.10.28. 일월문화제와 함께하는 '가을빛 아외 춤 축제'(포항운하 플라워광장)
	2017. 8.13. 찾아가는 문화활동 구룡포 '아라 춤 축제'
	2017. 7.23. 해변 춤 채스티벌(영일대 워터풀리)
	2017. 7.22. 비치아트페스티벌 참가(영일대 버스킹무대)
	2017. 6. 4. 경북무용제 예선개최(시청 대장홀)
	2016.9.22~10.1 제25회 전국무용제 경북대표출전 (소타임 댄스프로젝트 '은상'수상)-대전시립연정국악원
	2015.12.2~12.5 한-중문화교류참가(중국 산둥성)
	2005~현재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2~현재 해변 춤 페스티벌 개최(영일만해수욕장 일원)
	1999.10.3 포항시승격50주년 국제우호도시 일본후쿠야마결연
	2000~2001 20주년기념공연참가(포항문화예술회관)
	1996~현재 일월문화제 '가을빛 아외춤축제' 개최
	1995~현재 경북무용의밤 순화공연참가(도내일원)
	1995.6.1 포항문화 예술회관 개관기념공연(포항문화예술회관)
	1993~현재 포항무용제 개최
	1992~2015 송년무용제 개최
	1990~현재 경북무용제 참가
	1991.7.15 91년도 정기총회 임원개선 지부승인
	1998.3.20 한국무용협회 포항지부결성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



임원	연혁 및 주요행사
지 부 장 최부식	2019.12. 6. 포항예술인한마당 전시 '나의 살던 고향은...' 참여(포항시립중앙아트홀) 2019.11.14. 「포항문학」 발간
부지부장 한국건	2019.10.12. 제19회 평보백일장(포항대학)
부지부장 서숙희	2019.10. 5. 제13회 일월문화제-거리문학축제(꿈틀로 청포도다방)
사무국장 김동현	2019. 9. 7. 제20회 재생백일장(제일교회 교육관) 2019. 7-12. 포항소재문학작품공모전(포은중앙도서관) 2019. 5.25. 2019보리누름 문학제(죽장 입암서원 일원) 2019. 4. 6. 제32회 쇳물백일장(환호 해맞이공원) 2018.11. 「포항문학」45호 발간 2018. 9. 8. 포항문학축제(꿈들로) 2018. 9. 8. 제19회 재생백일장(덕수공원) 2018. 6. 2. 제18회 평보백일장(포항대학교 평보관) 2018. 5.19. 제32회 보리누름문학제(장기읍성) 2018. 4. 7. 제31회 쇳물백일장(포항실내체육관) 2017.10. 「포항문학」44호 발간 2017.10. 포항문학세미나(꿈틀갤러리) 2017.10. 일월문화제와 함께하는 '포항문학축제'(꿈틀갤러리) 2018.09. 재생백일장(덕수공원) 2017.05. 보리문학제(대보면 구만리 일원) 2017.05. 제17회 평보백일장(포항대학 평보관) 2017.04. 제30회 쇳물백일장(포항체육관) 2016.12.16. 제8회 포항소재 문학작품 공모 시상식-포스코 국제관 1층 대회의실 2016.12.10. 부설 포항문예아카데미 제 19기 수료 2016.10.28. 「포항문학」제43호 발간-특집 「고령화시대 지역문학의 현재」 2016.09.24. 제17회 재생백일장-수도산 덕수공원내 재생이명식 문학공덕비 앞 2016.05.21. 제16회 평보백일장-포항대학 평보관 2016.05.28. 제30회 보리누름문학제-대보면 구만리
	2016.04.02. 제29회 쇳물백일장 포항체육관 2015.12.18. 부설 포항문예아카데미 제18기 수료/극동방송 5층 2014.01.01. 제10대 지부장 시인 하재영 2012.01.01. 제9대 지부장 아동문학가 김일광 2010.01.01. 제8대 지부장 소설가 이대환 2009.10.09. 제1회 포항소재 문학작품 공모 시상식-포항시청 대회의실 2006.01.01. 제7대 지부장 시인 김만수 2002.01.01. 제6대 지부장 아동문학가 김일광 2000.01.14. 제5대 지부장 시인 김정구 1999.10.14. 부설 포항문예아카데미 제1기 수료(장승부 외 37명) 1999.09.15.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 설립 20주년 기념식/오션파크호텔 1999.07.01. 제4대 지부장 수필가 빈남수 1999.04.01. 부설 포항문예아카데미 제1기 개강(224주간) 개강강의: 손준익-문학의 힘 1998.10.31. 제1회 재생백일장-수도산 1998.02.28. 재생 이명식 문학공덕비 제막-수도산/비문:손준익, 글씨:정현식, 조각:홍성문 1997.12.04. 포스코 강사부와 자매결연 1993.07.23. 제1회 하계세미나-청하 유계리 1992.05.30. 제1회 보리누름 행사-구룡포 상정리 1991.12.23. 제1회 송년문학의 밤-시낭송의 밤/장소: 늘솔꽃집 내 '호프 낭만주의자' 1989.01.01. 제3대 지부장 아동문학가 손준익 1988.04.01. 제1회 쇳물백일장-포항공과대학 잔디밭 광장 1983.05.20. 한축구 문학비 제막-내연산 보경사/비문:손준익, 글씨:이준홍, 조각:홍성문 1983.01.01. 제2대 지부장 수필가 성홍근 1982.09.08. 「포항문학」제2호 발간-특집 향토문학씨름팀방 '문영문학동인회' 1981.09.25. 「포항문학」창간호 발간-특집 「한축구의 문학과 인간」 1979.08.31.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 구성 초대 지부장 수필가 빈남수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임원	연혁 및 주요행사	2016	2017	2018	201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부장 박상현 수석부지부장 김왕주 부지부장 송상현 부지부장 김귀조 사무국장 이종길	2019 제20회 포항-광양 미술협회 교류전 (광양문화예술회관) 제37회 포항미술협회 정기전-향해 (포스코 갤러리, 포항) 제14회 포항-POSCO 불빛미술대전(포항문화예술회관) 제15회 열린세대전(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제31회 경재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영일대해수욕장 일대)	제32차 정기총회 제34회 정기회원전 제17회 포항-광양미술협회 교류전 제11회 포항POSCO불빛미술대전 제28회 경재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2016 열린세대전-경재정선 '가을을 보다' 2016 송년전	2017 제20회 포항-광양 미술협회 교류전 (광양문화예술회관) 제37회 포항미술협회 정기전-향해 (포스코 갤러리, 포항) 제14회 포항-POSCO 불빛미술대전(포항문화예술회관) 제15회 열린세대전(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제31회 경재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영일대해수욕장 일대)	2018 제34차 정기총회 제36회 정기회원전(포스코갤러리) 제19회 포항-광양 미술협회교류전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제13회 포항-포스코 불빛미술대전 (포항문화예술회관) 제30회 경재 전국학생실기대회 (영일대해수욕장)	2019 제20회 포항-광양 미술협회 교류전 (광양문화예술회관) 제37회 포항미술협회 정기전-향해 (포스코 갤러리, 포항) 제14회 열린세대전-경재정선 '가을을 보다' (포항시립중앙아트홀, 보경사일원) 특별전 아트마켓'Beautiful Life' (포항시립중앙아트홀) 포항예술인한마당 특별전 '영일만 사람들' (포항시립중앙아트홀)	2010 포항-광양교류전(포항문화예술회관) 경상북도-하남성 미술교류전(포항문화예술회관) 제5회 포항-POSCO 불빛미술대전(포항문화예술회관) 제22회 경재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환호해맞이공원) 2010 열린세대전 '경재정선 가을을 보다'(보경사) 제28회 포항미협 정기회원전(포스코갤러리) 2010 포항미술인 시장학회기금 마련전 (포항문화예술회관) 2010 송년바자회전(포항문화예술회관)	2011 제14대 지부장 박정열 제27차 정기총회 제13회 포항-광양미술교류전 2011 경북 Art Fair 제6회 포항-POSCO 불빛미술대전 제29회 포항미협 정기회원전 제23회 경재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2011 열린세대전 '경재정선 가을을 보다' 2011 송년바자회전(포항문화예술회관)	2012 제28차 정기총회 제30회 포항지부 정기회원전 제13회 포항-광양미술교류전 제5회 영일만 스케치 및 세미나 제7회 포항-POSCO 불빛미술대전 제26회 경상북도미술협회전 제24회 경재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2012 열린세대전 '경재정선 가을을 보다' 2012 송년바자회전	2013 제29차 정기총회 제31회 포항미협 정기전 및 포항-수원 미술교류전 이끔갤러리 소품전 경북아트페어 2013 제40회 경상북도 미술대전 제40회 경상북도 서예-문인화대전 제8회 포항-POSCO 불빛미술대전	2014 제15대 지부장 이병우 제 30차 정기총회 제32회 정기회원전 토요누드크로키 수원포항 미술협회 교류전 제15회 포항-광양미술협회 교류전 제9회 포항-POSCO 불빛미술대전 제26회 경재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2014 열린세대전-경재정선 '가을을 보다' 2014 송년전	2015 제15대 지부장 박종범 제31차 정기총회 제13회 포항-광양미술교류전 제27회 경재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2015 열린세대전-경재정선 '가을을 보다' 2015 송년전(포항시립중앙아트홀)	2016 제32차 정기총회 제34회 정기회원전 제17회 포항-광양미술협회 교류전 제11회 포항POSCO불빛미술대전 제28회 경재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2016 열린세대전-경재정선 '가을을 보다' 2016 송년전	2017 제33차 정기총회 제35회 정기회원전(포스코갤러리) 제18회 포항-광양 미술협회교류전 제12회 포항-포스코 불빛미술대전 (포항문화예술회관) 제29회 경재 전국학생실기대회(영일대) 제13회 열린세대전-경재정선 '가을을 보다' (포항문화예술회관) 11월 2017 미술인마당	2018 제34차 정기총회 제36회 정기회원전(포스코갤러리) 제19회 포항-광양 미술협회교류전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제13회 포항-포스코 불빛미술대전 (포항문화예술회관) 제30회 경재 전국학생실기대회 (영일대해수욕장)	2019 제20회 포항-광양 미술협회 교류전 (광양문화예술회관) 제37회 포항미술협회 정기전-향해 (포스코 갤러리, 포항) 제14회 열린세대전-경재정선 '가을을 보다' (포항시립중앙아트홀, 보경사일원) 특별전 아트마켓'Beautiful Life' (포항시립중앙아트홀) 포항예술인한마당 특별전 '영일만 사람들' (포항시립중앙아트홀)	2020 제13대 지부장 최복룡 2005~2007 제12대 지부장 류영재 2002~2004 제11대 지부장 최재영 1999~2001 제10대 지부장 최인수 1997~1998 제9대 지부장 강문길 1995~1996 제8대 지부장 김두호 1993~1994 제7대 지부장 김두호 1992 제6대 지부장 신정기 1991 제5대 지부장 배원복 1990 제4대 지부장 배원복 1989 제3대 지부장 박인호 1988 제2대 지부장 박인호 서울올림픽맞이 협산문화제 참가 제2회 한국미협 포항지부 회원전(수화랑) 제12회 협산문화제 학생미술실기 대회 예총 경북지회주최 도내 미술시화전 순회전 참가 향토미술인 송년전	2021 초대지부장 조희수 3/01 한국미협 포항지부 승인요청 6/10 한국미협 포항지부 인정 제21회 한국미협전(구립현대미술관)참가 한국미협 포항지부 창립전(향토청년회관 전시실) 협산문화제 학생미술실기 대회 포항MBC 창사기념 초대전 경상북도지부 참가 향토미술인 송년전											

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



임원 연혁 및 주요행사

지부장 권순종	2019년 12월 2019년 회원전 12월 제11회 포항관광 전국사진공모전(포항시립중앙아트홀)
부지부장 원영만	10월 제31회 포항전국사진공모전(포항시립중앙아트홀)
부지부장 이용대	7월 2019년 포항국제불빛축제 촬영대회(형산강 체육공원 일원)
사무국장 박영길	5월 2019회원단합촬영대회(남원)
2018년	12월 제25회 지부회원전(포항문화예술회관 로비) 11월 제10회 포항관광사진공모전(포항문화예술회관) 11월 2018년 추계단합 및 촬영대회(인제) 10월 제30회 전국사진공모전(포항시립중앙아트홀) 8월 제13회 불빛축제 전국사진공모전(포항시립중앙아트홀) 5월 회원 촬영회 및 단합대회(칠포해수욕장)
2017년 12월	포항예술인한마당 특별전 'Portrait of Artist'(포항시립중앙아트홀) 11월 제9회 포항관광사진공모전 10월 제29회 포항전국사진공모전 8월 2017 포항국제불빛축제 촬영대회 4월 포항시, 포스코 아경사진 공모전
2016년	지부장: 김병철, 사무국장: 이용대 제13회 포항국제 불빛축제 전국사진공모전 제28회 포항전국사진공모전 제8회 포항관광사진공모전 제13회 국제 불빛축제 금상
2015년	지부장: 김병철, 사무국장: 이용대 제12회 포항국제 불빛축제 전국사진공모전 제27회 포항전국사진공모전(제11회 일월문화재 행사관련) 제7회 포항관광사진전국공모전 제21회 지부회원전
2014년	지부장 김병철 사무국장 이용대 제11회 포항국제 불빛축제 전국사진공모전 제26회 포항전국사진공모전 제6회 포항관광사진공모전 제1회 포항지부 세미누드 촬영회 제20회 포항지부 회원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포항지부



임원 연혁 및 주요행사

지부장 이경식	2019.11.18.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정관 제41조 및 지회·지부설치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인준
부지부장 김만수	지부인준 제2019-08호
부지부장 이광호	

사무국장 김영대 2019.11.13.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포항지부 창립총회

한국연극협회 포항지부



임원	연혁 및 주요행사
지 부 장 이한업	2019.10.12. 제13회 일월문화제 및 제7회 마키다 연극축전 '토끼와 포수'(포항아트센터)
부지부장 이정길	2019.10. 4. 3·1운동 100주년, 포항 시승격 70주년기념 특별공연 연극 '포항'공연
사무국장 최은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9.6.21~23 제28회 경북청소년연극제 및 제16회 포항청소년연극제(포항시 청소년수련관, 100시어터)
	2019. 6. 2. 포항지부 사무실 개소식
	2018.12.15. 별신님 오시는 날(2018포항예술인한마당, 포항시청 대잔홀)
	2018.11.22~24 아마데우스(포항시립극단,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강당)
	2018.10.24~26 조용한세상(시민문화행사 겸 제6회 마카다 연극축전, 포스코인재창조원 대강당)
	2018.10.17~10.21 영일만 친구(극단 가인, 포항아트센터)
	2018.7.1. 막차 탄 동기생(극단 은하, 경북연극제 및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2018.6.15~17 경북청소년연극제 겸 포항청소년연극제(청소년수련관)
	2018.6.7~9 철로(포항시립극단, 포항시청 대잔홀)
	2018.5.28.~30 철로(포항시립극단, 장생포고래축제 참가)
	2017.12.7~2018.1.7 빨간 피터의 고백(극단은하, 100시어터)
	2017.11.30~12.02 포항시립연극단 공연 '연애의 시대'
	2017.10.17~18 일월문화제 연극협회 공연 '특별한 저녁식사'
	2017.06.03~7.22 극단 가인 '꿈틀로 예술여행'(예술가 창작소 체험 프로그램)
	2017.05.26~11.24 극단 가인 '꿈틀로에 부는 연극바람'(2017 경북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7.03.04~05 극단 가인공연 '사랑이 벙글다'(극단 가인 워크샵 공연)
	2017.07.29~08.02 전국청소년대회 두호고등학교 경북대표로 참가
	2017.06.03~04 포항청소년연극제 겸 경북청소년연극제 (6학교 참가 중 '두호고등학교' 경북청소년연극제 최우수 선정)
	2017.06.21~25 포항시립연극단 공연 '오장군의 발톱'
	2017.03.09~12 포항시립연극단 공연 '갈매기'
	2004~ 현재 포항청소년연극제
	2005~ 현재 포항연극제
	2001 포항비다국제연극제 주최
	1999.04.10~14 제10회 경북연극제 초우수단체상, 연출상, 최우수연기상 수상
	1997~현재 영일만 축제 연극공연(격년제)
	1997~현재 가을연극공연
	1994.11.15.~17 국제우호도시(일본, 후쿠야마) 문화교류 연극공연(배비장전)
	1994.06.03 제12회 전국연극제 우수상(단체), 연출상, 연기상 수상
	1993~현재 경북청소년연극제 주관
	1992~현재 송년연극공연
	1992~현재 포항연극세미나
	1990.5.30 제9회 전국연극제 장려상(단체) 수상 장소: 진주
	1990~현재 경북연극제 주관
	1989.6.4 제7회 전국연극제 우수상(단체), 연기상(여자), 연출상 수상
	1989.5.22~6.4 제7회 전국연극제를 경상북도와 공동주관
	1985.5.26 제3회 전국연극제 대통령상(단체), 연기상(여자) 수상
	1965.9.25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포항지부 인준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포항지부



임원	연혁 및 주요행사		
지 부 장 장한식	2019.10.31. 시월의 마지막 밤 해변콘서트(영일대 버스킹무대)	2015.12.12. 사랑나눔 일일호프(길채라이브)	1996.10.8 96문선단 위안공연(항공전단 연병장)
수석부지부장 박미령	2019.10.20. 대구·경북연합예술제(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백결공연장)	2014.11. 1 제1회 포항색소폰페스티벌(포항문화예술회관)	1996.5.28 제24회 소년체전 경축공연(포항문화예술회관)
부지부장 김다희	2019. 8.29. 비치아트페스티벌(송도 물빛누리공원)	2014. 3.26 11대지회장 장한식	1996.5.27 소년소녀가장 위안의 밤(포항문화예술회관)
부지부장 김현철	2019. 7. 6. 제5회 대구·경북연합예술제(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웅부홀)	2013~현재 재능나눔 콘서트(환호공원)	1995.10.4 제76회 전국체전 축하 시민가요제(포항문화예술회관)
부지부장 이상록	2019. 7~9. 추억의 라이브콘서트(전통놀이공원)	2013~현재 감사나눔 빅 콘서트(영일대 해수욕장)	
부지부장 최병철	2019. 5.26. 제12회 내연산 산사음악회(보경사 솔숲)	2012 10대지회장 심근식	1995~2014 어버이날 기념 경로장치
사무국장 김진아	2019. 4.28. "함께해서 좋다 With you"(포항시 북부장애인복지관)	2009~현재 청소년트로트가요제(경북도일원)	1995~ 6대지부장 유광준
	2019. 3. 정기총회 및 유공회원표창(티파니웨딩)	2008~현재 포항교도소 교화공연(교도소강당)	1994.7.30 해변예술제
	2018.10.28. 시월의 어느 멋진 날(영일대 버스킹무대)	2007~현재 내연산 음악회(보경사)	1993.11.27 해병기갑부대 위문공연(해병1사단 도솔관)
	2018.10.28. 해변 락페스티벌(영일대 버스킹무대)	2006~현재 한여름밤의 라이브 콘서트(영일대 해수욕장)	1993.4.4. 포항MBC해변노래자랑(칠포해수욕장)
	2018. 9. 6. 김창수 색소폰앙상블페스티벌(환호해맞이공원)	2005~2015 포항 선린애육원 위문공연(애육원강당)	1992~1994 제1~3회 경북청소년 창작가요제(포항시민회관)
	2018.7~9 추억의 라이브콘서트(환호해맞이공원)	2003~2014 실버페스티벌(포항시 일원)	1992~현재 성모자애원 자선위안공연(성모자애원)
	2018.12.28. 제23회 포항시민가요제(평생학습원 덕업관)	2003~2014 청소년 락 페스티벌(중앙상가)	1991.4.13 포항군 제6전단 장병위문공연(해군항공단)
	2018. 1.10. 죽도시장한마음축제(죽도시장)	2001~현재 7080 라이브콘서트(환호공원)	1991.6 5대지부장 심근식
	2017.10.29. 락 페스티벌(영일대해수욕장)	2000~현재 송년예술제(위안공연, 포항시 일원)	1987~1988 청송보호감호소 교화공연
	2017.7~9 추억의 라이브콘서트(환호전통놀이공원 상설무대)	2008.9.27 해병대 군장병 위문공연(해병대 연병장)	1987.6 4대지부장 김기태
	2017. 6.11. 시민노래자랑(해도근린공원 특설무대)	2008.4.17 한국연예협회 포항지회로 명칭변경	1983.6 3대지부장 이금용
	2017. 5.14. 제11회 내연산 산사음악회(보경사입구 특설무대)	2008 9대지부장 심근식	1979.6 2대지부장 장시일
	2016.10.30. 10월의 마지막밤 콘서트(영일대 해수욕장)	2006.5.19 사랑으로 이어주는 음악회(해병대 연병장)	1975.6 한국연예협회 동해지부 설립-초대지부장 이금용
	2016.10. 5. 죽도시장 사랑나눔음악회(죽도시장)	2006.4.20 봄맞이 라이브콘서트(효자아트홀)	1974.1 3대분회장 이은교
	2016. 8.15. 해변 락 페스티벌(영일대 해수욕장)	2004 8대지부장 심근식	1973.1 2대분회장 손문구
	2016. 7.30. 구룡포 한얼 음악회(구룡포아라공장)	2000.3.25 불우돕기 사라의콘서트(시그너스호텔)	1971.1 한국연예협회경북지회 포항분회설립
	2016. 5.14. 영호남예술교류 락 페스티벌(영양군민회관)	2000.2.25 소년소녀가장돕기 조성모콘서트(포항실내체육관)	-초대 분회장 김정훈
	2016. 6. 1. 제42차 정기총회-포항지회	2000 7대지부장 심근식	
	2016. 5. 1. 12대지회장 장한식	1997~1998 무의탁노인 경로잔치(죽장면)	
	2015.12.20 사랑나눔 콘서트(포항문화예술회관)	1996~현재 제1회 포항시민가요제(시내일원)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



임원	연혁 및 주요행사	2012.9.12. 시민문화행사 "아름다운 동행"		2003.12. 3. 효곡동민을 위한 겨울음악회		1996.4.13. 제12회 신춘음악회	
		2012.8.23. 제13회 학생음악공연	2012.7.3. 2012 신인음악회	2003.11.29. 제12회 포항음악제	1995.12.6. 제4회 포항관악회	- 송년예술제 일환	1995.11.28. 제4회 포항음악제
지부장 박성희	2011.12.9. 제20회 송년예술제 및 협회 송년회	2003.8.23. 한·일 합동연주회 (후쿠야마 시티밴드)	2003.11.8. 포항시 생활체육회 연주회	1995.7.26. 후쿠야마 초청 일본 연주	1995.4.11. 제11회 포항 신춘음악회	1994.12. 제3회 포항관악제	1994.12. 제3회 포항음악제
부지부장 김난현	2011.10.9. 2011 일월문화제 일월음악제	2003.7.19. 제4회 학생음악공연	2003.7.16. 전주에총 조성연주회	1994.12. 제3회 포항관악제	1994.12. 제3회 포항음악제	1994.12. 송년예술제 일환	1994.4.30. 제10회 포항 신춘음악회
부지부장 문경호	2011.9.24. 제12회 음악공연	2003.6.3. 청소년을 위한 관악대축제	2003.5.17. 신인음악회	1993.12.14. 제2회 포항관악(오페라 하이라이트의 밤)- 송년예술제 일환	1993.12.6. 제2회 포항음악제	1993.8.6. 일본 후쿠야마 문화연맹 초청	1993.5. 제9회 포항 신춘음악회
사무국장 남현숙	2011.6.20. 2011 신인음악회 및 회원찬목회	2003.5.23. 제20회 포항예술제 포항합창제	2002.12.21. 제11회 포항관악제	1992.12. 제1회 포항관악제	1992.11.13. 제1회 포항음악제	1992.10. 기악의 밤	1992.10. 힙싱의 밤
	2010. 송년예술제	2002.12.21. 제11회 포항관악제	1991.10. 제9회 포항관악제	1991.10. 제7회 포항 신춘음악회	1990.4.20. 제7회 포항 신춘음악회	1987.4.20. 제7회 포항 신춘음악회	1987.4.20. 제7회 포항 신춘음악회
	2010. 일월문화제	- 송년예술제 일환	1990.10.18. 문화행사(가을음악회)	2000.12.16. 제9회 포항관악제	1990.10.18. 제6회 포항음악제	1986.5.20. 제6회 포항 신춘음악회	1986.5.20. 제6회 포항 신춘음악회
	2010. 제10회 학생음악공연	2002.11.27. 故 윤상빈 교수 추모음악회	2001.11.26. 제10회 포항음악제	2001.6.29. 2001 신인음악회	1990.5.20. 제5회 포항신춘음악회	1985.10.20. 제5회 포항 신춘음악회	1985.4.21. 제5회 포항 신춘음악회
	2010. 2010신인음악회	2002.6.28. 신인음악회	2001.4.21. 제2회 학생음악 공연	1999.12.11. 제8회 포항관악제	1999.12.20. 제7회 포항관악제	1983.5.20. 제2회 한국 학생음악 경연대회 개최	1983.3.24. 제3회 포항 신춘음악회
			2000.12.16. 제9회 포항관악제	1999.10.25. 제8회 포항음악제	1982.6.15. 제2회 포항 신춘음악회	1982.5.5. 제1회 한국 학생음악경연대회 개최	1981.4.21. 제1회 포항신춘음악회
			- 송년예술제 일환	1999.10.7. 영일만음악제	1982.5.5. 제1회 한국 학생음악경연대회 개최		1981.4.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 창립 청립총회 개최
			2008.12.9. 포항관악제	1999.6.23. 99 신인음악회	1983.5.20. 제2회 한국 학생음악 경연대회 개최		
			2008.10.11. 10월 문화행사(에총, 포항시)	1998.12.20. 제7회 포항관악제	1983.3.24. 제3회 포항 신춘음악회		
			2008.10.8. 제17회 포항음악제(합창제)	1998.11.25. 제7회 포항음악제	1982.6.15. 제2회 포항 신춘음악회		
			2008.9.27. 제9회 학생음악공연	1998.10.11. 영일만음악제	1982.5.5. 제1회 한국 학생음악경연대회 개최		
			2008.7.24. 2008 신인음악회	2005.12.16. 포항관악제- 송년예술제 일환	1981.4.21. 제1회 포항신춘음악회		
				2005.10.28. 포항음악제	1981.4.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 창립 청립총회 개최		
				2005.10. 8. 영일만축제	1981.4.21. 제1회 포항신춘음악회		
				2005. 7.23. 제6회 학생음악공연	1981.4.21. 제1회 포항신춘음악회		
				2005. 6. 7. 2005 신인음악회	1981.4.21. 제1회 포항신춘음악회		
				1997.12.20. 제6회 포항관악제	1981.4.21. 제1회 포항신춘음악회		
				- 송년예술제 일환	1981.4.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 창립 청립총회 개최		
				1997.12. 제6회 포항음악제	1981.4.21. 제1회 포항신춘음악회		
				1997.11.14. 영일만음악제	1981.4.21. 제1회 포항신춘음악회		
				1997.5.16. 제13회 신춘음악회	1981.4.21. 제1회 포항신춘음악회		
				1996.12.20. 제5회 포항관악제	1981.4.21. 제1회 포항신춘음악회		
				- 송년예술제 일환	1981.4.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 창립 청립총회 개최		
				1996.12.2. 제5회 포항음악제	1981.4.21. 제1회 포항신춘음악회		
				1996.10.23. 영일만음악제	1981.4.21. 제1회 포항신춘음악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항지회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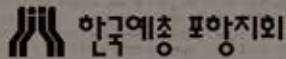
1981. 3. 22.	한국예총 정관 제2조 및 지부설치 운영규정 제4호에 의하여 인준 지부(현. 지회)인준 제9033호
1981 ~ 1986	한국예총 포항지부 제1~2대 지부장(빈남수)
1987 ~ 2003	한국예총 포항지부 제3~7대 지부장(신상률)
2004 ~ 2007	한국예총 포항지부 제8대 지부장(송수웅)
2008 ~ 2011	한국예총 포항지부 제9대 지회장(박이득)
2012 ~ 2015	한국예총 포항지부 제10대 지회장(심근식)
2016 ~	한국예총 포항지부 제11대 지회장(류영재)
1982 ~ 1993	형산문화제 주최
1992 ~ 2015	포항예술제(승년예술제)주관
1995 ~ 2006	영일만축제 예술행사 주관(격년제)
2000 ~ 현재	시민문화행사 예술행사 주관(격년제)
1979 ~ 현재	국제우호도시(일본 후쿠야마)와 문화교류
2003 ~ 2005	포항예총 소식지 발행
2006	『포항예술』 창간호 발행
2007	포항예총 회관 확보
2007 ~ 현재	일월문화제(구. 영일만축제) 예술행사 주관(격년제)
2007 ~ 2015	『포항예술』 2호~10호 발행
2016	예술지 11호 「예술포항」 발행
2016 ~ 현재	포항문화예술창작지구 조성사업
2016	포항예술인한마당 - 바다위의 예술
2017	비치아트페스티벌 개최
2017 ~ 현재	구룡포 문화특화마을 조성사업
2017	예술지 12호 「예술포항」 발행
2017	포항예술인한마당 개최
2018	비치아트페스티벌 개최
2018	예술지 13호 무크 「예술포항」 발행
2018	포항예술인한마당 개최
2019	비치아트페스티벌 개최
2019	예술지 14호 무크 「예술포항」 발행
2019	포항예술인한마당 개최

임원

회장	류영재
부회장	최부식 이해령 장한식
상임이사	최복룡
이사	권순중 박상현 박성희 이경식 이한엽 이원만 이해령 장한식 최부식
감사	박성희 서영칠 이용대
사무국장	추경우

2019 포항예술인한마당

전시 2019. 12. 6 ~ 11 〈나의 살던 고향은…〉
공연 2019. 12. 11 〈나의 포항〉



발행인 류영재 포항지회장
편집 추경숙 사무국장 권서연 사무차장
제작 나루기획
발행처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항지회
37722 포항시 북구 해동로 270, 2층(동빈1가)
T. 054)249-6587 F. 054)255-6587
www.phart21c.or.kr

© 도록에 실린 내용과 이미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